



성도의 빛 10

1975



'75
한국 대회 특별호



월간

성도의 벗

제11권 제10호

1975년 10월호

대판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엔 엘튼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5년 10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123호

발행인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번역 : 한국번역 출판부

전화 : 74-6832

발행소 :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 서울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수

순서

2. 신전을 짓는 백성 스펜서 더블류 킴블
4. 저는 저의 형과같이 되고 싶습니다 애드니 와이 고마즈
6. 너희가 주께 구하여 보았느냐? 데오도르 엠 버튼
9. 복음의 메시지 스티얼링 더블류 실
13. 간증 어네스트 엘 윌킨슨
14.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고든 비 힝클리
17. 영원한 가족 폴 에이치 던
19. 슬기로운 자 김 창신
21. 예언자, 선지자, 계시자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24. 평화 제임스 에이 칼리모어
27. 영원한 기쁨을 얻게하는 지침 랜델 제이 애쉬튼
28.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주님의 계획 매리온 지 롬니
29. 네개의 모퉁이 돌 고든 비 힝클리
31. 우리 시대에 필요한 용기 바바라 비 스미스
33. 구두속에 있는 모래 제임스 에이 칼리모어
35. 어린이를 가르치자 스펜서 더블류 킴블
37. 청소년—우리의 소망 에즈라 태프트 벤슨
40. 합당한 선교사 에이치 버크 피터슨
41.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마빈 제이 애쉬튼
42. 의로운 일을 행함 데오도르 엠 버튼
44. 순결하고 합당하라.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라 스펜서 더블류 킴블
46. 신권과 복음의 성약 매리온 지 롬니
49. 신권의 권세 마빈 제이 애쉬튼
50. 신권의 축복 스펜서 더블류 킴블
53. 교회 역원 지지 매리온 지 롬니
55. 회개 매리온 지 롬니
58. 말일을 준비하는 말일성도 이호남
60. 살아계신 예언자 폴 앤드러스
62. 천국 가족의 일원 에이치 버크 피터슨
64. 용기 마빈 제이 애쉬튼
66. 예수 그리스도—우리의 은인 에즈라 태프트 벤슨
72.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오 레스리 스톤
75.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길을 따르다 박 재암
78. 마음을 준비하라 스펜서 더블류 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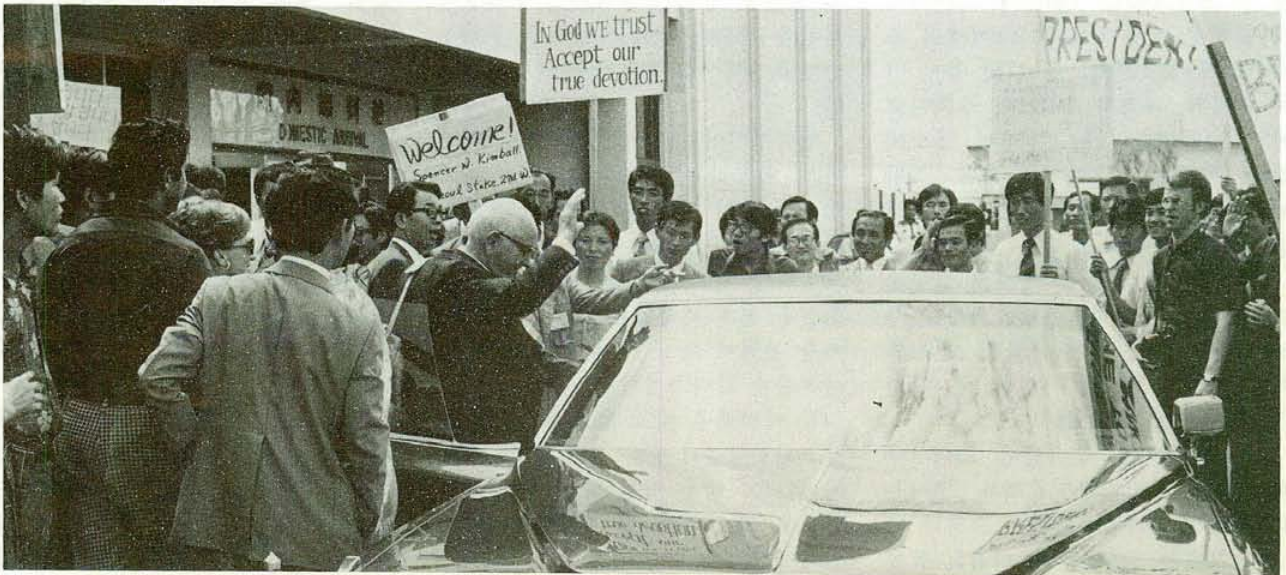
1975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성도의 벗의 1년 정기구독료는 1200원 입니다. 특집을 제외한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 입니다. 특히 1년에 2차례 발행되는 특집호 1권 값은 250원이며 한번에 5권이상 구입할 경우 권당 200원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구독자의 주소 변경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 입니다. 구 주소와 신 주소가 동시에 도착되지 않으면 주소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의 항공1년 구독료는 일본, 홍콩, 마카오, 중국이 7불, 필리핀, 태국이 9불,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가 14불,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근동 아시아가 18불이며 선박은 어느곳이나 3불 입니다. 구독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성도의 벗사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한국 대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1975년 8월 15, 16, 17 사흘간에 걸쳐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한국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본 성도의 벗 사에서는 10월호에 특집으로 한국대회의 말씀을 신는다.



신전을 짓는 백성

스펜서 터블류 킴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전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과 안부를 전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세계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는 약 4백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방금 합창단이 노래한 대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다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의 합당함과 의로움과 계명을 지키는 노력을 보시고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1973년 3월,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스테이크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을 본인은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때 제가 여러분을 많이 만났고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만 하더라도 유타주와 미국을 떠나서는 전세계에 스테이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교회는 참으로 큰 발전을 거듭해서 온 세상에 널리 퍼졌습니다. 제가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전세계에는 148개의 스테이크가 있었던 것이 지금은 700여개의 스테이크로 늘었으며, 이 17년 동안 미국 이외의 지역에 121개의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습니다. 필리핀 군도에 하나, 일본에 셋, 한국에 하나, 그밖에 전세계에 100여개의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습니다.

스테이크는 완전한 규모로 발달된 교회의 단위입니다. 스테이크를 훌륭하게 조직하고, 모든 책임을 그 지역의 회원들이 충실히 이행할 때, 교회는 훨씬 빨리 발전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봉사했던 1914년만 하더라도 전세계에 선교사 숫자는 1,4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교사는 2만명을 돌파하고 있는



니다. 전세계에 교회 사업은 번창 일로를 치닫고 있고 그 사업은 실로 여러분과 우리를 모두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 약 3천여명의 신학 연구원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드리는 나라가 65개국에 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친밀한 형제애를 가진 것을 알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 성도들이 친밀한 형제애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수천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에 우리는 발전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한국민이야말로 참으로 조상을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잡지에 실린 기사를 통해서 저희는 바로 여러분 성도 중에 한 분이 약 70대까지 계보 탐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찬사를 보내며 계보 사업에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왜 여러분은 계보 자료를 모으도록 권고받았겠습니까? 그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신전 의식을 행하여야 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나신 조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영의 세계에서, 그들의 후손인 여러분이 거룩한 주님의 신전에서 그들을 위하여 의식을 행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신전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사실을 주시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까지 가자면 약 7천 마일을 여행해야 됩니다.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도 거의 같은 거리이고, 그보다 약간 가까운 곳이 하와이입니다. 우리는 수백만이나 되는 조상을 모신 여러분께서 그와 같이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신전 사업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께서서는 저희들에게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신전을 세우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1주일 전에 동경에서 발표한 바 있는 새로운 사실, 즉 동양 지역에 신전을 세우리라는 발표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신전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건물입니다. 또한 신전을 운영하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요구하는 모든 곳에 신전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한국 성도들이 크게 발전하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여기에 맞추어 계보 사업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어, 저희가 이 땅에 신전을 세울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려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동경에 신전을 세우려고 하는 저희의 뜻에 여러분께서 지지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도 보여 드린 적이 없는 신전 모습을 이 시간에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서 몇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신전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

으로 확신합니다. 동경에 신전을 세우는 데 있어 저희의 뜻에 동의하시는 분은 모두 오른손을 들어 지지의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지지의 뜻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합당한 계보 사업을 해야 하며,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특별한 양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전 건립을 위하여 우리는 재정적으로도 많은 것을 도와야 합니다.

저희는 몇 개월 전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새로운 신전 건립을 발표하 바 있습니다. 그곳의 젊은 두 남자는 미국에 있는 신전에 가서 결혼하기 위하여 2천 8백불을 저축해 놓고 있었습니다. 신전 건립에 대한 발표가 있자 청년은 "지역 사정으로 비용이 1천 4백불로도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2천 8백불 중 나머지를 모두 신전 건립 사업에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밖에 많은 사람들도 큰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액수의 비용을 절약하게 됩니다.

신전이 없을 때 교회는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입니다.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신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교회가 거의 조직되지 못했습니다. 박해자들에 의해서 그곳을 쫓겨나자 성도들은 나부시를 전설하였으며, 곧 신전을 지었습니다. 박해자들이 다시 성도들의 집과 신전을 불태우자 그들은 다시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새로운 신전을 건립하기 시

작하였습니다. 이 웅장하고 거대한 신전을 건립하는 데 약 40년이 걸렸기 때문에 이 신전을 건립하는 동안 다른 세 개의 신전이 별도로 건립되었습니다.

신전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가족을 결속해 주는 영원한 인봉 의식과 결혼 의식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은 모두 우리의 조상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 사업을 행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전과 성장의 긴 과정 중에 있습니다.

로렌조 스노우 매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인간처럼 하나님은 한때 인간과 같았으며, 인간도 현재의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토마스 시몬,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 46-47페이지)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지니고 있는 동안 신전을 짓고, 지금 이 시각에 영의 상태로 있는 사람을 위하여 의식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으로 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새로운 특권과 기회를 받아 이 지상에 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다시 영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배우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서의 행위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경지로 한 발자국씩 내딛게 됩니다.

천사는 신전에 가지 않은 사람이거나 신전에서 의식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이러한 결봉 의식에 노력을 들이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천사로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아내에게 인봉하고 아내를 남편에게 인봉한다면, 또한 우리의 자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인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천사들의 경지를 지나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짧은 시일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경지에까지 이끌어 올리는 데는 길고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부활하여 분사불멸의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아브라함의 사업을 행하라. 나의 율법에 참여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교성 132:32)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조상이신 이삭과 야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승영에 이르렀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경지가 아닌 하나님의 경지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고 계신 이 지역에 신전을 건립하는 데 여러분의 많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받고 영수하는 현금 관리 위원회가 조직될 것입니다. 이 위원회가 조직되기 전이라도 여러분은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에게 직접 현금하시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께서 각자 돌아가시는 즉시 합당한 절차대로 계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저는 저의 형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애드니 와이 고마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국에서 최초로 갖는 이 훌륭한 지역 대회에 여러분과 함께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 문화의 밤 행사에서 보여 주신 여러분의 훌륭하고 놀라운 재능에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역사적인 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았읍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므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과 간증이 발전되었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한국 땅의 자녀들을 크게 축복하셔서 살아 계신 예언자를 보내시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험이 늘어감에 따라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는 이 위대한 축복이야말로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은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간증과 지식은 곧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과 요셉 스미스는 이 말일에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온 세상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인도하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참으로 가치있는 일이며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값지고 거룩한 간증을 어떻게 하여 끝까지 지니며 끝날에 합당하고 신앙있는 자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간증



을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와 이웃에게 전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이 교회에 속하신 분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초기 교회 개척자처럼 여러분은 가정에서 개척자인 것입니다. 그들 역시 복음의 원리대로 살고자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든지 죽든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환란 중에서도 충실한 자는 저의 상이 천국에서 더욱 크리라.

“너희는 이 후에 있을 일에 관한 너희 하나님의 계획과 많은 환란이 있는 뒤에 올 영광을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볼 수 없느니라.

“많은 환란이 있고 난 연후에 축복이 임할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많은 영광의 관을 쓸 날이 오느니라. 그때는 아직 아니나 가까웠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 준 이 사실을 기억하여 명심하고 다음에 올 것을 받도록 할지어다.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대업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로 순종케 하고 너희 마음에 미리 준비를 갖추어 장차 임할 일을 간증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58 : 2-6)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 가는 동안에 어떤 환란이 있어도 주님께 충실해야 하며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나 친구, 이웃과 더불어 복음을 토론할 때 그들이 여러분의 말에 호응하지 않거나 여러분이 가르치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참고 견디어야 하며 부모 형제, 그리고 친구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됨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얻는 행복과 기쁨 중에는 가족의 승영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미혼인 채 부모 형제와 살고 있다면 그들은 아마도 여러분의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복음의 아름다운 진리를 그들에게 보이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 : 16)

최근 어느 간증 모임에서 한 젊은 청년이 교회에 속한 이래 처음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의 간증은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저의 형은 저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형이 신권의 부름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맡은 형의 직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일하고 있으며 또 근면과 겸손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형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 형은 훌륭한 모범을 보여 동생에게 의의 길을 따르도록 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나는 분명 이 두 형제가 그들의 부모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생에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가치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관용과 온유함과 친절과 인내로 행복을 추구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신권을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21 : 41-42)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려 할 때는 주님께서 지시하신 바에 따르도록 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젊은이들이며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 받아들인 삶의 방법을 부모님들께서 좋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의 뜻을 받드십시오. 여러분은 언젠가 그들의 곁을 떠나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꾸미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꾸민 자신의 가정에서 복음의 원리를 가르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낙담하지 말고 그러나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해 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시겠다

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네가 선을 행하고 또 끝까지 충실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이니 구원의 은사보다 더 큰 것이 없음이라.” (교리와 성약 6 : 13)

우리는 이제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복음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합시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부모, 친구, 이웃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도 개종자입니다. 저는 17살 때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저의 홀 어머니와 저희 남매들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고, 우리의 부모와 형제 자매를 공경하며, 예언자의 권고와 충고를 들을 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생의 지침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저는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였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주께 간구하여 보았느냐?

데오도르 엠 버트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얼마 전에 북아프리카에서 있었던 무서운 기근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하여 수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갔습니다. 그 기사를 쓴 사람은 이와 같은 기근과 죽음의 원인이 인구 과잉에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단순히 농사에 의존하여 생계를 이어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자는 그가 그 나라를 두루 여행하면서 관찰한 바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의 그릇된 결론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짐승 사료를 재배하는 데 필요한 물을 비에 의존하는 사람은 미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지상이 울창한 삼림과 덤불과 수풀로 우거져서 가축을 먹일 거리가 많았다고 그는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염소나 가축이 점점 늘어나면서 풀을 모두 뜯어 먹어 버렸습니다.

풀이 다 없어지자 가축은 덤불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덤불마저도 다 먹어 버리게 되자 인간은 나무를 베어 그 잎을 가축에게 먹였습니다.

풀도, 덤불도, 나무도 없어져 맨 땅만 남게 되자, 바람은 표토를 날려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비가 오자 홍수가 났고, 그나마 땅에 남아 있던 흙을 모두 씻어 내 버렸고, 결국 많은 인명과 가축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땅은 황폐하여지고 모래와 가물이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모든 것이 인구 과잉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는 기사를 읽어 나가면서 그의 그릇된 결론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재난을 빚게 된 것은 그 원인이 인구 과잉에 있는 게 아니라 무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재난이 오게 된 참된 원인을 찾아 보지는 않고 그 원인을 인구 과잉으로 돌린 것입니다. 문제는 인구 과잉이 아니라, 농사법을 몰랐던 데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은 흘렀으나 그들은 발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그들의 조상이 사용해 왔던 비경제적인 농사법을 그대로 답습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경작법, 토지 관리법, 비료 공급법, 가축에게 보다는 인간에게 필요한 농작물을 개발하는 법, 물과 가축 사용법 등을 잘 배울 수 있었다면, 이와 같은 재난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를 얻을 수 있었으나, 사람들은 이에 대해 알지 못했고 결국은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진리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귀

를 막는다면 그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올 수 있는 지식에 관하여 고대 로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 : 13-14)

이러한 원리는 영적인 지식을 얻는 일에서나 세상적인 지식을 얻는 일에서나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지식이란 그것을 활용할 때 비로소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은 인간에게 예언자를 보내시어 진리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예언자가 계시다는 사실과, 자녀를 그토록 사랑하시어 그들에게 그와 같은 지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직후, 지상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알았습니다.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의 의로운 자녀들이 백성들에게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인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들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족이 장성하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차로 사라졌으며 죄악, 비참, 불행 등이 세

상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사랑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슬프게 하는 일을 했을 때 그분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그치지 않으시며 그의 면전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는 노력을 그치려 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예언자를 보내 주셔서 이 지상에 빛과 지식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언자를 여러분은 직접 만나 뵙게 되었으니, 여러분은 참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러한 분들의 간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언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영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관한 진리와 지식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좀더 건강해 질 수 있는 방법, 좀더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나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좀더 풍족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지식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그로 인하여 혜택을 얻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보아, 무관심과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사자를 보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나 자신의 방법에 얽매어 있고, 부모나 이웃의 관습에 따르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변경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편견은 금물입니다. 편견은 배우는 길을 막습니다.

외부로부터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지식을 귀담아 들어보고 판단을 내리려 하기 보다는 부모

나 이웃의 생각이나 습관에 쫓으려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전통적인 신조나 습관이 올바른 것이라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으나,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알려고 조사하고 연구하지 않는 이상,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경에서 이와 같은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리하이이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리하이에게 그가 살고 있는 땅의 주민이 멸망되리라고 경고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와 그의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으로 가서 의로운 자들이 이 지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가족은 여행을 하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더 좋은 땅으로 이끄는 데에는 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그의 두 아들, 레이먼과 레뮤엘은 아버지에게 대항하여 반항하였으며 그가 가르치는 바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의 마음은 강박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그르치려 하였습니다. 리하이이는 두 아들의 이와 같은 사악한 행위를 몹시 책망하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믿도록 권하였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보호받고 싶거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버지가 참으로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족을 위하여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이상한 행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가르침이 모두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악하고 무관심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리하이이는 비유로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그의 땅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아들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감람나무를 예로 들어, 좋은 가지를 접붙이면 좋은 과실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에는 야생 가지를 접붙여 영양을 뿌리로 잘 공급하게 하면 야생 가지가 길들여진 가지로 변화되어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나무를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나무 입자는 훌륭한 결실을 얻게 됩니다. 리하이이는 감람나무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법과 주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이 지상에 남겨 두신다는 사실을 비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여행을 하였으며, 그들과 자녀가 끝까지 충실히 견디면 영광된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먼과 레뮤엘은 아버지 리하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린 동생 니파이는 이 진리를 믿었으며, 예언자이신 리하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려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습니다.

니파이는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가르침에 형들이 불평을 토로하는 것을 들으면서 슬퍼하였습니다. 니파이가 형들에게 왜 불평을 하느냐고 묻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보라 부친은 감람나무의 원 가지와 이방인에 관하여 말씀하셨으나 이를 이해하지 못하겠노라.

니파이일서 15 : 7

그러자 니파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

...너희가 주께 간구하여 보았느냐 하였더니 ...간구하지 않았노라. 주께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심이라.

니파이일서 15 : 8-9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와 같은 대답을 자주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고대에 그러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예언자를 통하여 인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눈이 멀고 무지한 상태로 머물고 맙니다.

니파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니파이는 형들이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인간에게 알려 주시지 않는다”는 말에 대한 답으로 훌륭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니파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강박하게 먹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의 계명을 지키며 응답되리라고 믿으며, 신앙으로 내게 구할진대, 이러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니파이일서 15 : 11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를 행하며, 이를 위해 간구할 때 우리는 지식은 물론, 보다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며, 큰 기쁨을 안겨 주는 축복까지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제약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에 준행하는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빛과 지식을 구하더라도 우리의 생활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내게 불순종하는 아들이 있다면 나는 그 아들의 행동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거나 축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가 그의 행동을 바꾸어 성실하고 충성스런 아들이 되기 전에는 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생활할 때 하나님은 더욱 큰 빛과 지식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십니다.



하늘에는 우리의 아버지, 곧 생명과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영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합당하게 임명된 자인 예언자를 통해 그의 진리와 지식을 우리에게 보이고 인도하십니다.

나는 이러한 생각이 인간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뜻깊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그 진리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확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우리가 믿고 행하는 몇 가지 일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간단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에는 부모님과 조상을 숭배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전통의 기원과 왜 이것을 강조하는지를 알고 있는 동양인이 얼마나 될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기가 거듭되면서 이 전통의 참

목적과 이유가 우리의 뇌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일에 예언자를 통하여 위대한 진리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 진리란 곧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신권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권능은 축복사인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정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의 권리로써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혈관 속을 흐르는 피는 영과 같이 우리의 개체에 스며 들게 됩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향력에 반응을 보일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통할 때, 그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수 있는 신앙과 용기를 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빛과 지식과 축복과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아버지에게 맺은 약속”이라 합니다.

의로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식을 위한 축복과 상속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에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 큰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부모가 하나님께 정직하고 성실한 관계를 가질 때 가

장 고결한 미덕이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빛과 지식을 잃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치 않을 때 그 전통은 자녀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길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에 순종한다는 관습은 부모님의 빛과 지식과 행위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말일에 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우리의 조상을 구원하는 방편이 되도록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조상의 영은 지금도 살아 있어서 현재 영의 세계에서 선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가 영의 세계에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지상에서 그들을 위하여 특별한 대리 의식을 받아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완전한 영광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그들을 위한 특별한 일, 곧 그들 자신이 현재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 주어야 합니다. 조상에게 꽃이나 음식을 드리기 보다는 그들을 위하여 친절을 받고, 그들을 위하여 특별한 축복을 받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동양의 전통인 조상 숭배가 그 기초를 두고 있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된 이유를 깨닫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왜 조상을 공경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다만 전통을 따르던 사람들보다 훨씬 잘 조상을 공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부분적으로만 조상을 공경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완전하게 조상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 주는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식의 기근에 주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지식을 활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 풍족히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분명히 보았으며,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신권도 받았읍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온전한 진리와 권능을 갖고 있는 유일한 교회이며 하나님이 조직하시고 인정하신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정하신 예언자가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이끄는 교회입니다.

이웃과 친구의 행동이나 전통으로 길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만 의로운 생활로 진리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된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갖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러한 진리를 깨달아 간증을 갖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빛나는 지식과 축복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시다. 아멘.

1975년 8월 16일 토요일 오전 모임

복음의 메시지

스터얼링 더블류 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지난 두 주일 동안 이 위대한 아시아에서 갖는 많은 대회를 참석하면서 참으로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 때에 주님의 예언자가 이 대회를 방문하신 것은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시아 대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곳입니다. 이 대회는 과거 예언자의 음성과 낯선 곳이 아닙니다. 이 대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곳이며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륙에서부터 과거의 경문의 시대에 복음의 메시지가 세계 만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이 진실하다는 간증을 드릴 수 있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대관장님께서서는 여러분의 후손과 조상에게 축복이 될 신전 건립을 발표하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나라와 이곳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국민에게 축복을 주시려 오셨습니

다.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자니 어떤 특정한 면에서 자기보다 월등하지 못한 사람은 만나본 일이 없다고 한 어머니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떤 점에 있어서는 모두 교회 내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며,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나 개발할 수 있는 개성,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훌륭한 모

범이 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취미와 교회의 부름을 통해 우리가 지닌 훌륭한 자질을 서로의 유익과 발전을 위해 활용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권리에 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할 때 모든 예지와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와 지시를 받는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나이 여덟 살이 되던 해에 생애에서 가장 잊지 못할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저는 제가 다니던 작은 교회에서 스테이크 부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스테이크 부장님이 들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세워 악수를 청하며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어서 그분은 아버지의 이름을 물으시더니 아버지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일본 정도에 불과했으나 그 일본 동안 저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때 저는 언젠가는 나도 스테이크 부장님과 같은 인품을 지닌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반드시 자신을 말로써만 표현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느낌으로 압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할 때 이 사실을 꼭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보다 더 자주 자신의 생각을 표시해야 되겠지만 아뭏든 우리는 상대방의 표정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서 발산되는 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감적이며 도움을 주는 느낌은 제가 오래전 그 날에 느꼈던 바로 그것입니다.

뉴턴경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말한 사람은 볼테르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뉴

턴 박사가 별들이 서로 그 궤도를 유지하게 해 주는 상호 인력에 관한 연구를 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데 지구가 그 사과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만일 사과와 지구가 떨어져 있다면 지구는 사과를 자기쪽으로 잡아당길 것입니다. 사과와 지구를 일직선 상에 놓으면 사과는 수평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또 사과가 아래쪽에 있고 지구가 위쪽에 있다고 하면 사과는 위로 떨어져 올라 갈 것입니다.

교회에는 우리를 위로 이끌어 올리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헌신적인 사람을 스테이크 부장단으로 불러서 우리를 관리하도록 한 이유는 그들의 생활이 갖는 힘으로 우리를 더 높은 곳까지 끌어 올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보조 조직의 역원과 정원회 회장단 그리고 교회의 총관리 역원을 두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신 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 12 : 32)

저는 이 모임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음의 원리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예언자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며, 그분이 이 위대한 나라에 있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열심히 계명을 지키려 노력하시고,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려 노력하시며, 메시에 있어서 예언자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도록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완전히 못한 헌신 또는 외형적인 윤리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열의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나 우리의 가족 또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시간이 없다 말하고 세상 일에 몰두하여 주님을 잊어버리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먹고 잠잘 시간도, 일할 시간도, 죽을 시간도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었다”고 말하는 가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해야 하는가를 논한 톨스토이의 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어느 평원에서 5 에이커의 땅을 소유하고 편안히 살아가는 농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그에게 5 에이커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10 에이커로 늘렸습니다. 그는 다시 오십 에이커를, 나중에는 천 에이커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열 두 시간에 뛰어 올 수 있는 거리 안의 모든 땅을 그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해가 떠오르는 것을 신호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북쪽으로 세 시간을 달렸습니다. 그 다음 동쪽으로 세 시간, 다시 남쪽으로 세 시간, 그 다음은 다시 출발 지점을 향해 서쪽으로 달렸습니다. 결국 해가 서쪽으로 질 때에야 겨우 지친 몸을 이끌고 결승점에 들어 왔으나 곧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후 친구 몇 명이 그를 넓이 4 피이드, 길이 6 피이드, 깊이 6 피이드의 땅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 제사야 그는 과연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 땅이 어느 정도인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그만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언제나 사랑과 의로움과 행복이 깃들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 생활을 효율적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위대한 일 곧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의 아버지의 일”에서 반드시 성공을 거두어야 합니다.

(눅 2:49) 그것은 성실성과 인품과, 의로움과 그의 자녀들의 삶을 위한 영생을 이룩하는 사업입니다.

얼마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아나운서가 다른 몇몇 인사와 함께 때마다 주요 방송망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데 사용하는 막대한 돈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나운서에게 방송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 즉 세상 사람들에게 방송된 내용 중에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들을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지상에 있는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노동 조합원, 정치인, 경제인, 대학생,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아나운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분은 우리의 삶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얻은 가장 큰 행운은 이 위대한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세상에 오셔서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져 있던 자신을 직접 나타내신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기록에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나타나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리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일은 없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우리의 삶을 가치있게 만들기 위해 꼭 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소 지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메시지를 세 권의 새로운 경전에 기록하게 하셨으며 복음의 단순한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 택하지 않는 한 끈고 좁은 길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 저는 교회를 헌납하였읍니다. 헌납식이 끝나고는 상호부조회에서 준비한 점심을 받기 위해 줄을 섰읍니다. 그런데 제 바로 뒤에는 신교에서 약 25년간 목사로 일해 왔다는

분이 있었읍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생활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면서 느끼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읍니다. 그러나 늘 그를 괴롭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있던 교회에서 약 5마일 가량 떨어진 곳에 같은 종파의 한 성직자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읍니다. 어느 날 그는 교역자 회의에 참석하여 회장과 아침 식사를 나눌 기회가 있었읍니다. 회장에게 교리에 관한 생각을 피력하자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럼 다른 목사들이 믿고 있는 바를 알아 봅시다” 그들은 질문서를 만들어 그곳에 참석한 목사들에게 나누어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리이러한 교리를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질문서에 나타난 대답은 서로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을 계기로 사임했던 것입니다.

두주 후에 선교사 두 명이 그를 방문하여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선교사들을 들어 오게 했으며 그날 선교사들은 첫번째 토론을 가르쳤읍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물었읍니다. “다른 토론이 또 있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은 두번째 토론을 가르쳤읍니다. 선교사들은 그 날 오후 내내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며 다음날 아침에는 토론 전부를 가르쳤읍니다. 이제 그가 알고 싶어 한 것은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말했느냐?” “당신들은 그 교리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하는 것이었읍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도 한분의 개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값진 진주를 퍼서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을 본 기사를 읽어 주었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의 실체를 보여 주셨으며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셨읍니다. 선교사는 또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으며, 예수께서, 아버지께서도 그와 같은 형

상을 하고 계시다고 말했다는 것을 읽어 주었읍니다. 이 사람은 유아 침례에 관해 알고 싶어했읍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다시 물문경 모로나이서를 펴서 모로나아가 주님의 사자가 유아 침례에 관해 이리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읽어 주었읍니다. 모든 복음의 원리에는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침례를 받게 되었읍니다.

얼마 전 저는 널리 알려진 목사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는 3, 4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비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 해서 그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비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가 복음의 원리를 조금 밖에 모른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를 매우 좋아합니다. 아뵘든 저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재미있게 들었읍니다. 그후 저는 세상을 조금 떠들썩하게 한 그의 저서 한 권을 사서 아주 주의 깊게 읽었읍니다. 3주 후에 저는 다시 그 도시에 갈 기회가 있어 그의 이야기를 들으러 갔읍니다. 모임이 끝난 후 사람들은 그에게 축하의 악수를 나누기 위해 줄을 섰읍니다. 저는 줄 맨 뒤에서 서서 기다리다가 모두 가고 난 뒤에 자신을 소개했읍니다. “박사님 저는 스티어링 실이라는 사람으로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왔읍니다. 3주 전에 온 일이 있는데 그 때 박사님의 말씀을 아주 잘 들었읍니다. 저는 박사님의 저서도 읽어 보았는데 역시 훌륭했읍니다. 그런데 박사님 말씀과 저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 잠시 토론해 볼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읍니다. “박사님 저서에는 ‘너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뺏어라’ 또는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이 방송인이 한 말 즉 만약 누군가 세상에 와서 하나님 이 어떤 분인지 말해 주며, 우리가 사는 목적을 말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가장 가치있는 지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창세기 1:27)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꼭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꼭 같은 형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인간이 지음을 받은 그런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목사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구원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 17:3)

이 위대한 목사는 사탄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마귀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나는 마귀를 믿는다. 나는 전쟁의 마귀, 증오의 마귀, 공포의 마귀, 부도덕의

마귀가 있음을 믿는다.” 이 모든 것은 분명 마귀가 하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세계에서 반란과 거짓 교리를 가르쳐 삼분지 일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낸 무서운 사탄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훌륭한 목사는 복음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권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주님께서 교회에 역원을 두신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가 실제로 부활한다는 것도 믿지 않았고 영원한 결혼이나 죽은 자의 구원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침례의 단순한 원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기 교회에 속하고 싶으면 지원서 한 통을 써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침례를 받으냐고 묻자 그러한 것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 보았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고 싶어한다면 받을 수는 있습니까?” “물론이죠, 원하신다면 받을 수도 있지만 침례는 필요치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침례를 받으냐?”고 물었습니다. “글쎄요,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물에 들어가거나, 문에 들어올 때 손가락을 물에 담가서 침례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침례를 베푸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부인도 할 수 있고, 당신 딸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당신 혼자도 할 수 있지요. 누가 하든 상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신 이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그에게 부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지상의 성역을 마치고 떠나실 준비를 하셨을 때, 감람산 꼭대기에서 그의 앞에 모인 사도들에게 주신 커다란 임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

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9-20)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징계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막 16:16) 주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목사는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각대로 교리를 가르친 목사들에게 가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시현 가운데서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하느냐고 묻자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신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준엄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또 “그들의 교사는 부패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 2:19)

나는 겸손하고, 친절하고, 남을 도울 줄 아는 훌륭한 목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것은 무시퍼의 죄 곧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죄입니다. 이 위대한 목사는 매주 수백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경우, 결과로 고통을 겪어야 할 사람은 단 한 사람 뿐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면 저는 수천의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아무도 인정되지 않은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야 하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상에 사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세권의 경전을 주셨으며, 각 경전에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는 권위있는 말씀을 덧붙이신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알려 주신 모든 원리대로 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를 성취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간증

어네스트 엘 윌킨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킴블 대관장님 부처와 기타 총관리 역원, 그리고 교회 본부 역원들과 함께 이곳 동양에서 갖는 지역 대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저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며칠 전,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롬니 부대관장님께서 이 간증을 얻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요셉 스미스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그는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뒤를 이어 받은 모든 교회 대관장님들도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은 권능을 지니



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이 지상에 주님의 대변자요, 살아 계신 예언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과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이 주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는 성신이 제게 증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이 주님의 예언자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이는 그분 자신이 예언자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생애 동안 정직, 고결, 사랑, 모든 사람에의 봉사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이 주님의 예언자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이는 제가 그분과 지내면서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간증입니다. 저는 최근 수년간 킴블 대관장님의 주치의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이 그분을 병마로부터 일으키셔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하신 분으로 세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두 차례의 후두암 수술과 심장 수술을 받으신 그분이 지금은 최근 어느 때보다도 활력을 가지시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이 그분을 완쾌시키셔서 그분이 지니신 권능을 충분히 행사하고, 복음을 온 세상 방방곡곡에 전파하는 그분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 기회를 감사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리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김블 대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한 바 있는 힝클리 자매는 한번은 친구로부터 어느 나라가 가장 인상적이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경치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말일성도의 생활에서 본 아름다움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아름다움과 영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이 보여주신 프로그램에 대해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훌륭했으며 제가 본 것 중에서 제일 훌륭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재능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예언자가 우리와 함께 하여 이 대회를 관리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언자들이 이곳에 모셨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귀한 특권입니까!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소가 약간 덥기는 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함께 하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회에 참석했던 때는 1960년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어느 고등학교 체육관을 대회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대회도 겨울에 또 다른 학교 체육관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체육관 한복판에 큰 난로가 놓여 있었고, 긴 연통이 굴뚝이 있는 벽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연통이 빠져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현재 선교부가 있는 곳을 사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석유 난로를 놓았는데도 실내는 몹시 추웠습니다. 그래도 불쾌했던 추억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위

대한 말일의 사업이 참되다는 간증을 서로 나누던 즐거운 추억만이 남아 있습니다.

훌륭한 노래를 들려 주신 합창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계속해서 노래해 주십시오. 주님께 찬송드리고, 회복의 찬송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으로 영원한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간증을 전하십시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만나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니오니까 그 부모오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은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에 놀라며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고 묻자 “예수

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니 바리새인들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이루신 일을 부정하며 이 일을 안식일에 행했다고 책하고 죄인이 그같은 이적을 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아들에게 물으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하니

그 사람은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요 9:1-25)

형제 자매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받은 간증을 조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오는 이 간증이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힘입니다. 한국에 교회 건물이 늘어나고 더 훌륭한 시설을 갖게 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이것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업의 위대한 힘은 교회 회원 개개인의 간증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교회를 이해할 수는 있어도 이 사업이 진실되다는 것

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지식은 주님의 은사로 얻게 됩니다.

2년 전에 호주에서 선교부장단 보좌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1961년에 한 선교사가 그의 집을 방문하여 물몬경 한 권을 두고 갔는데 그 책은 4년 동안 그대로 책장에 꽂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물몬경을 뽑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잠이 들기를 바랐지만 그는 오히려 책의 내용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라고 자문했습니다.

한참 생각하던 그는 주님께 “하나님, 이 책이 참된 책입니까?”라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책은 참된 책이다”라고 말하는 영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나는 밤 2시에 선교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을 덜 깬 듯한 사람에게 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다음날 두 선교사가 집으로 찾아왔는데 이들은 내 생애에서 처음 보는 천사와 같았습니다.”

이 형제는 그후 복음 공부를 하여 침례를 받고 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은 그가 거룩한 경전을 읽던 날 밤에 얻은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밤에 그를 찾아온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는 말씀을 잘 기억해 둡시다. (요 3장 참조)

많은 사람이 니고데모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같이 바람 소리를 들으나 어



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 하지는 않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를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주님의 사업을 시작한 개척자로 오래도록 존경받을 김호직 박사도 이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미국 코넬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독실한 장로교 신자였는데 우리 교회 회원인 올리버 웨이먼 형제에게서 받은 물몬경과 신앙개조를 읽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배워 알게 된 진리를 장로 교회에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웨이먼 형제는 성령의 힘을 입어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박사에게 전하면서 “주님께서 형제님을 미국에 오게 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여 그 복

음을 한국 백성에게 전하여 그곳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선교 사업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간증을 들은 김박사는 영의 감동을 받아 물몬경을 읽고 그 책이 참되다는 간증을 새로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침례받은 곳에서 가까운 사스케하나 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물에서 나오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성령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는 후에 자기 물몬경에 적힌 침례 기록 아래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들음”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교회 선교 사업, 95, 96페이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속하게 됨으로써 친구와 동료와

심지어는 가족까지 포기하고 여러분에게 임하는 성령의 권세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같은 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임했는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니, 내가 저들을 향하여 노여워함이니라.”(교성 60 : 2)

이 말씀은 진리에 대한 간증을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힐책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도해보지 않고서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고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적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

“보라,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나.”(교성 64 : 33, 34)

이 말씀 중에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나니...”란 부분이 핵심입니다.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좌절과 실망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시도할 때 우리는 영원한 유익이 되는 훌륭한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한 젊은이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쾌활하고 행복한 청년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내가 그와 가진 대화 때문에 그가 지금 선교사로 봉사하게 된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호놀룰루와 시드니간을 다니는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아내는 미국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란 책을 읽고 있는 한 청년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그 청년에게 가서 앉았습니다. 그는 책을 읽으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가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그가 읽고 있는 책의 저자를 안다고 말했더니 그는 흥미를 갖는 것 같았습니다. 그 책을 왜 읽느냐고 묻자 그는 예언자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던 중, 도서관에서 그 책을 발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안다고 말했더니 그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그는 옛날에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죽은 줄도 알지만,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라는 것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간증을 전하고 예언자와 복음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선교사를 만나 보겠다고 했으며, 이 활기 있고 유능한 청년은 교회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인 지금 그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내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우리가 비행기에서 나는 대화를 이야기했고 특히 그에게 감명을 준 것은 나의 예언자에 대한 간증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그의 마음에도 임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도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도 모두 진리를 깨닫게 해 준 바로 그 성령의 권세로 이 사업이 참되다고 간증하실 수 있습니다. 영감을 받아 말할 때 그 간증을 듣는 자의 마음에도 영이 함께 합니다.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 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교성 18 : 15)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을 여러분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한국에서 여러 번 드린 간증을 다시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분은 창조주요 우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십니다.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였으며 소년 시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을 받았으며, 이 때가 찬경륜의 시대가 시작되게 했습니다. 이 교회에는 계시의 영이 있으며 오늘 살아 계신 예언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러한 간증은 신앙으로 알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주어지며, 성신의 권능으로 알게 됨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증을 얻었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여야 합니다. 주님은 현대의 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고로 기운을 내어 두려워 말라, 나 주가 너와 함께 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임이니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간증하리니,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에도 살아 계시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간증하리라.”(교성 68 : 6)

우리 대부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복음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를 두려워 하며 남의 기분을 다치지 않을까 두려워 합니다. 우리는 무안을 주거나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지킵니다. 주님은 이같은 일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중 몇 사람을 크게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노니, 저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재능을 숨겼음이라. 그러한 자에게 화가 있나

영원한 가족

폴 에이치 던 장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가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지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라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제 2차 세계 대전 중에 경험한 일이 이 사실을 더욱 실감나게 해주었습니다.

남태평양에 주둔하고 있을 때, 나는 부상을 당하여 동굴 속에 숨어 있는 한 일본 군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거의 사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력을 다해서 대항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곧 항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국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철학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체포되면 죽게 된다고 생각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웅크리고는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는 예기치 않았던 우리를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본말을 할 줄 몰랐지만 손짓과 몸짓으로 그에게 내가 도움을 주려 한다는 것을 확신시켰습니다.

그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 주고, 음식과 물을 준 후에야 나는 통역자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나는 이 젊은 군인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둘 다 징집병이었고 고향에는 가족이 있었으며, 매우 집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또 우리 둘 다 야구를 좋아했으며,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 전쟁을 우리의 임의대로 계속하거나 종식시킬 수 있었다면 우리는 악수로 화해하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형제애를 느꼈던 것입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행 17:26)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형제 자매입니다!

바로 일 년 전에 나는 외과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불안한 나날을 보내면서 나는 깊은 사색과 명상에 잠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나온 나의 일생에도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내 생각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어디였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특별히 이루어 놓은 업적도 아니고, 내가 모은 물질적인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생각은 내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과 손자 손녀들 뿐이었습니다.

가족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내 가슴속 깊이 파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에서 함께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스러운 유대와

행복은 영원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그곳에서만 우리는 보다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초기 사도로서 팔리 피 프랫 장로가 계십니다.

그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서 개인적으로 가족 관계의 영원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프랫 장로는 다음과 같이 그때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접전을 갖는 중에 그는 하나님과 영원한 하늘의 질서에 관하여 위대하고도 영화로운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 나는 비로소 가족의 영원성을 알게 되었고 남녀의 영원한 결합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고귀한 예지를 가진 자와, 마음이 정화되고 청결한 자만이 그 참 뜻을 알고 소중히 간직할 수 있으며,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기초를 이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값진 관계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가족의 사랑은 오직 이 잠시 동안의 지상에만 속한 것이며,

따라서 천국의 상태에 이르려면 이러한 모든 세상적인 관계에서 완전히 마음을 정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나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아들과 딸의 사랑스런 관계를 소중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은 요셉 스미스였습니다.”

(팔리 피 프렛의 자서전, 297-8 페이지)

그렇습니다.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가족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족이 “영원한 가족”으로 지속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째, 남편과 아내가 끊임없이

보살피고 가꾸어 가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는 교회 회원 가운데서도 남편과 아내를 이루게 한 처음의 사랑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전에서 결혼식을 집행할 때, 나는 때때로 젊은 부부에게 서로가 상대방에게서 매력을 느꼈던 점을 적게 합니다.

그리고는 부부에게 결혼 첫 주 동안 이러한 매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는 부부간의 사랑은 끊임없는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 목록을 검토하라고 권합니다.

김볼 대관장님께서 결혼한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을 가꾸듯이 여러분의 사랑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부부간의 두터운 사랑과 서로 의지하는 마음이 지속되니, 이는 여러분의 사랑은 신성하고, 깊고, 모든 것을 감싸고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잘못 말하고 있는 육체적인 매력이 아닙니다.

결혼이 단지 이같은 육체적인 사랑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부부는 곧 서로 실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곧 가정의 파탄이 오고 이혼을 하게 되고 다시 새로운 육체적인 사랑을 찾아 결혼합니다만 이것 역시 곧 진부해져 오래 가지 못하고 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상호간의 믿음이요, 확신이요, 이해이며 온전히 함께하는 반력의 정신입니다. (기적을 낳는 신앙, 130-1 페이지)

2. 둘째, 신권으로 인도되는 가정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교성 42:14) 주어집니다.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어떠한 가족이나 개인도 영광스러운 결혼 생활과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파괴하려는 간교한 음성과 유혹과 도전을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신권은 행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한 주님의 프로그램에서 부모, 특히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게 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종파에 관계없이 이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는 함께 모여 계획을 수립하고 경전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웁니다.

모든 자녀는 자기 자신의 경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보조 조직이 가정에서의 복음 교육을 보충해 주게 됩니다.”

“이 훌륭한 가정 복음 교육 프로그램과 가정의 밤 프로그램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가장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내가 가장을 돕게 됩니다.

어떤 가장이 이 큰 특권을 마다하며, 이러한 가정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이끌어 나가는 일을 회피하겠습니까?

가장의 본분을 다하는 아버지가 이같은 기회와 책임을 회피하겠습니까?”

3. 세째, 가족은 성스러운 신전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봉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해의 영광에는 세 하늘 곧 세 가지 등급이 있느니라. 사람이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는 이 신권의 반차(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서약)에 참여해야 하느니라. 만일 참여하지 못하면 이를 얻을 수 없느니라.”(교성 131:1-3)

성스러운 신전에서 결혼하는 부부에게만 부여되는 성약, 임무, 중요한 권고, 그리고 신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성약을 충실히 지킬 때 그 부부는 해의 왕국의 결혼이라 하는 “신권의

반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집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들어 가기 위해서는 “들어 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권고를 받아들이고 성약을 맺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교리, 2:40)

이와 같은 엄숙하고 성스러운 의식을 통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들의 작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감명을 받았던 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 전, 유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남편과 아내가 참석 한 모임에서 어떤 자매가 감명깊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이 훌륭한 어머니는 그녀가 남편과 가족과 함께 신전에 갔을 때 맛보았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남편이 젊었을 때에는 몹시 불성실했다고 말했습니다.

방탕한 길로 빠져 몇 가지 나쁜 습관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신권 승진의 기회가 왔을 때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었지만 신전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그녀를 신전에 데리고 갈 수 있게 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후 여러 해가 지나 그들 부부에게는 다섯 딸이 생겼습니다.

그때 한 훌륭한 신권 소유자인 가정 복음 교사가 인내와 이해심과 사랑으로 이 방황하는 형제를 다시 활동 회원으로 돌이켰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아내를 신전으로 데리고 가는 날이 왔습니다.

그 자매님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자매님은 남편과 함께 성스러운 제단에 서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인봉받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전 방의 문이 열리고 어린

다섯 딸이 흰 옷을 입고 들어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단 주위에 모여 있으며,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이 이 가족을 영원한 가족으로 선포했습니다.

자매님은 감격에 넘친 어조로 이야기 들려 주었습니다. 자매님의 남편은 앞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매님은 연단 앞으로 몸을 기대고는 마치 그 자리에 남편과 단 둘이만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저와 딸 아이들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자랑스러운 남편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 뿐이에요.”

하늘에 있는 우리 가정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인 신권을 소유하신 당신이 없다면 저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내세에서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여보, 정말 고마와요.”

(해롤드 비리, 오클랜드 신전 헌납식 말씀에서 발췌, 임프르브먼트 이라, 1965년 2월, 124페이지)

참으로 우리는 가족과 함께 영원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듯이, 우리의 가족도 합법적으로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목적은 그의 가족이 모두 지금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승영에 이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가족이 없는 곳을 천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보살피고 가꾸어 나가는 사랑, 기도와 금식과 가정 교육으로 강화되는 가정, 성스러운 신전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봉된 가족...바로 이것이 “영원한 가족”을 이루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

는 가장 큰 재산은 가족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완전히 갖추실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갖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서 행해지는 선교 사업의 참다운 목적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도 이를 알리는 데 있습니다.

나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날 가족을 인봉할 수 있는 열쇠를 지닌 살아 계신 예언자,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조건을 완전히 갖추면 여러분의 가족과 나의 가족은 모두 영원한 가족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진리를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슬기로운 자

김 창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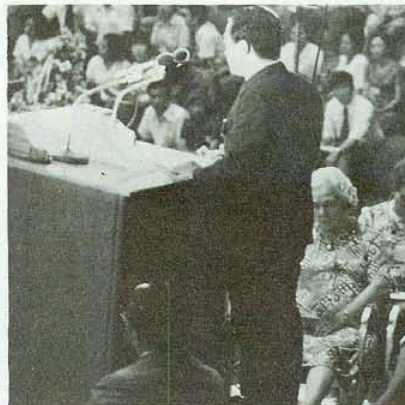
서울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처럼 훌륭한 교회 지도자를 모시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선이 무엇이며,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압니다. 미련한 사람은 이와는 반대로 선하지 못한 것을 찾으며 우매한 자리를 동경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어려운 역경에 처할수록 선하고 의로운 길을 찾으려고 애쓰며 노력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어려울수록 불만과 비판을 더하여 조상의 탓으로 돌립니다.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살아온 흔적을 살펴 본다면 선한 뜻을 품고 선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사람은

언제나 아름답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눈앞의 이익과 나만을 위하여 산 미련한 사람은 곧 멸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옛날 슬기로운 사람은 조국을 위하였고, 민족을 위하였고, 종교마저 번영케 하였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조국 통일을 위하여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즈라와 느헤미아는 민족의 수난 속에서 삶의 안정과 참신앙을 위해 죽도록 봉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하여, 인간을 죄악에서 구하기 위하여,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삼일만에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끊어졌던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다시 회복하셨고, 말일에 하나님의 참 복음을 말일성도에 수 그리스도 교회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습니다. “슬기롭다”는 것은 선을 뜻하는 것이요, 선의 근원은 곧 참신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처지를 보고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내가 선을 분별하며 선의 뜻속에서 사는 자냐 아니냐 함을 반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언제나 선을 좇고 선한 뜻을 품고, 선을 가지고 살며 그리고 이 선을 남에게 주고자 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현실의 불운하고 괴로움이 많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모든 비운의 탈을 벗고 복된 날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이 불의한 형제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팔리었던 불행한 자였으나 나중에 그의 형제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자는 선을 품고 이 거룩한 선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선을 지키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비유 중에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아, 배를 가져 온 자에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 속에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 오니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책하고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하셨습니다.
(마 25 : 14-29)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영과 육의 생활이 슬기롭습니까? 신앙도 슬기롭습니까? 미련하면 있는 것 마저도, 그 지위까지도 빼앗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즐기는 슬기로운 자이면 없는 자가 있게 되고, 있는 자가 더 얻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면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 선한 뜻을 품고 근면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의 일도 하지 않고 내일의 일만 염려하는 것, 무엇이나 하겠다는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이는 모두 미련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 : 34)

하나님의 선한 일에 꾸준히 힘쓰는

자가 천국을 얻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 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의 등에 기름이 없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못 보았으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꾸준히 기다렸기에 신랑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을 때 시험도 환란도 오는 것을 압니다. 또 뜻하지 않을 때 선한 일과 은혜가 내리는 것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은 슬기로운 종과 같이 주의 선을 좇고 선의 뜻을 품고, 선의 속에서 살고, 선을 남에게 주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더욱 선한 일에 근면을 다하는 끝까지 견디는 인생이 됩시다.

내 자신이 위로나 선을 받을 때 보다는 위로와 선을 남에게 줄 때 내 자신이 더 기쁘고, 거기에는 축복의 기업이 반드시 따릅니다.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잠언 17 : 2)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예언자, 선지자, 계시자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김 불 대관장님, 한국의 훌륭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성도들이 이처럼 훌륭히 대회를 준비해 주신 것을 볼 때 가슴이 벅찰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영으로 충만한 대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위해 영적인 양식을 저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래는 어떠한 미래가 되겠습니까?

1976년이나 80년 또는 90년 1월 1일자 신문을 받아 본다고 가정합니다. 어떤 기사가 실려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사가 실려 있을 것입니다.

쌀값이 얼마며 생선과 과일과 그밖에 우리가 먹는 식품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옷값과 집값은 얼마나 되는지 신문을 보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물정에 대해서도 신문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한 이와 같은 지식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문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다 볼 수는 없겠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의식주에 관한 물가보다 훨씬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값진 진주 모세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심히 높은 산으로 이끌리어 갔을 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마주 대하고 그의



말씀을 들은 모세의 감격과 희열이 어떠했겠습니까? 모세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그 음성이 아직 들리는데 모세가 눈을 돌려 세상 곧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며, 보지 못한 것이 세상의 티끌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으로써 이를 분별하였더라.”

“또 저는 세상의 주민도 보았나니 저가 보지 못한 자는 한 사람도 없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보셨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며 앞날을 여러분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원한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니파이삼서에는 가장 흥미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니파이 백성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바운티풀 땅에 있는 신전 주변에 모여,

“저들이 또한 그 죽으심의 표적이 이미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서로 서로 이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임하는지라. 저들이 눈을 들어 주변을 살피나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하니라.

“저들이 또 다시 그 음성을 들었으되 이를 깨닫지 못하였고,

“세 번째로 음성이 들릴 때 비로소 귀가 열려 듣게 되니라, 소리나는 쪽으로 눈을 돌려 곧게 하늘을 우러러 보매 그 소리가 하늘로부터 나는데,

“보라 세 번째 소리가 들릴 때 이를 깨달아 듣게 되었으니, 소리가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미대륙에 나타나신 사실을 묘사한 성구입니다. “저에게서 들으라”고 하신 아버지의 훈계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에게서 들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음성이 들릴 때에야 비로소 “귀가 열려 듣게” 되었으며 “소리나는 쪽으로 눈을 돌려 곧게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이를 깨달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기 위해서는 귀와 눈과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그 한 단계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전과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일성도들은 우리만의 특

별한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파에서 사용하는 신, 구약을 합친 성경이 있으며 이외에 물문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그리고 살아 계신 예언자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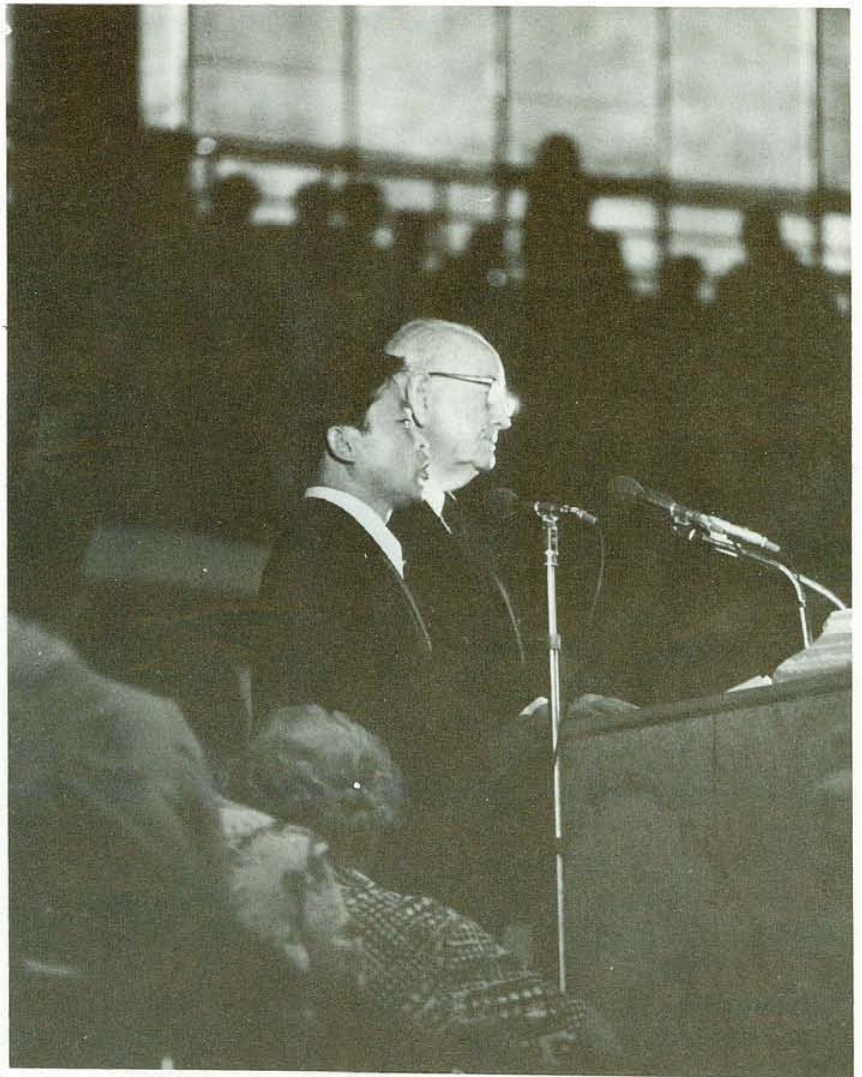
(CN 1960년 12월 17일 14페이지)

값진 진주의 모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 전능한 자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바다보다 강하여지리라. 이는 네가 마치 하나님인 것같이 네 명령에 순종할 것임이라.”

주님은 그후 계시를 통해 대관장은 “모세와 같아야”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거듭 이르노니, 대신권의 직분을 관리하는 대관장의 의무는 온 교회를



통할하며 모세와 같아야 하느니라.

“보라, 여기에 지혜가 있나니, 참으로 저는 교회의 머리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지닌 선견자요, 계시자요, 번역자요, 예언자니라.”(교리와 성약 107 : 91-92)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란 무슨 뜻입니까?

“대관장은 성도들로부터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요, 또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일치합니다. 1830년 4월 6일 교회가 조직된 후 요셉 스미스가 최초로 받은 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가운데 작성될 기록이 있으리니, 그 기록 중에 너는...선견자와 번역자와

예언자로 불리우리라.”(교성 21 : 1)

윗소 형제는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의 세 가지 명칭은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세 명칭이 갖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언자는 교사입니다. 예언자는 주님께서 계시로 주신 복음을 인간에게 가르치며 영감을 받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줍니다.

또 예언자란 인간의 행복이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분입니다. 그는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자에게 회개하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선견자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알지 못하는 일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 분입니다. 그는 과거와 현재를 알고 미래를 내다 보십니다.

예언자는 또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이 계시는 이미 받은 진리에 대한 설명이거나 이전에 받지 못한 새로운 진리입니다.

요약하면 예언자는 알려진 진리를 가르치는 자요, 선견자는 숨겨진 진리를 알아내는 자며, 계시자는 새 진리를 전하는 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언자란 명칭은 다른 모든 명칭이 갖는 의미를 내포하며 또한 교사요, 통찰력을 가진 자요, 진리를 전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명칭을 가진 자와 예언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을 믿으며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는 자들이며, 둘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모사이야서 15장 11절에는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의 말씀, 곧 주의 강림에 관하여 예언한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며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실 주를 믿으며 저들의 죄 사함을 받는 날을 바라는 자는 모두 저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

여기서 자손이란 예언자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자를 말합니다.

메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 아버지의 뜻을 이 세대에 나타내 보이시는 일이 전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살아 계신 예언자를 주시어 그러한 계시를 해석하게 하십니다.”(메리온 지 롬니, 대회 보고, 1945년 4월 89페이지)

옛날에 예언자는 백성들의 생활에

크나큰 역할을 했습니다.

신, 구약의 전편에 걸쳐 영감에 의해 예언자의 입으로 나온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늘과의 이같은 교통이 더 필요치 않습니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말일성도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암흑의 시대인 먼 옛날에 특별히 기쁨부음을 받던 자로부터 영감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도 이같은 예언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언자를 통해 받는 하늘의 지시를 존중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자로 받드는 그분은 통찰력으로 미래를 꿰뚫어 보며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질 하늘의 축복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닥칠 결과를 가르쳐 주어, 우리가 현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게 해 줍니다.

철학자는 신의 존재 여부와 신의 본성을 논했으며, 과학자는 신의 창조와 기적을 연구해 왔고, 미술가와 시인은 상징과 느낌을 통해 삶의 의미를 풀이하려 노력해 왔지만 오직 예언자만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갖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증거하여 왔습니다.

부름을 수행하는 예언자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에베소서 2:19-20)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나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에베소서 4:11-13)

구세주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됩니다. 사도와 예언자는 주님을 대표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과 지식을 갖게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시대에도 교회에는 사도와 예언자가 있어 예언자의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새롭게 증거하기를 계속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단순히 구약의 해석자가 아니라 그들의 동시대 사람들과 더불어 신약을 저술한 분들입니다.

오늘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직접 계시를 주셨고, 자신의 이름으로 그를 사도로 불러 진리를 받아 주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우리 교회의 최초의 예언자이며 그의 후임으로 여러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거룩한 직분에서 봉사하도록 성임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관장이 계시며 우리는 그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님을 하나님의 대변자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실천하는 계시자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신문을 읽고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일입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영생의 길은 이보다 얼마나 더 값진 것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단 한 분 뿐인 예언자가 계시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다.

그분이 수천 년전 고대 사람들이 입은 옷을 입지 않았어도 그의 말씀은 옛 예언자들의 말씀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거룩하고 영원하며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평 화

제임스 에이 컬리모어

나는 이번 한국 대회에 여러분과 같이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다녀 간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컬리모어 자매가 공항에서 발을 잘못 딛어 큰 부상을 입게 된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아내는 바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그때부터 며칠간을 병원에서 보내는 동안에도 나는 아내와 함께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친절과 사랑에 고마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컬리모어 자매를 위해 보여 주신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에 얼마나 고마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그 대회의 감동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은 여러분의 신앙을 나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입원해 있는 아내를 방문했던 일과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을 기억합니다. 아내가 외국에 있었지만 여러분은 아내에게 놀라운 평온과 만족감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아내에게 훌륭한 태도를 갖게 하셨습니다. 아내는 명랑하게 되었고 친절한 간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코 그 일 때문에 향수에 젖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수술을 했습니다. 고통은 줄어갔고 아내는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강한 신앙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내가 빨리 회복되어 우리가 하려 온 일을 다할 수 있도록 기적이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만난 일본과 한국의 모든 회원들의 신앙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회복되리라는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또 나



는 현명하신 예언자의 다음과 같은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병자를 위해 기도드린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병고침을 받거나 모든 의로운 자가 보호받고 악한 자가 멸망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며 복음의 기본 원리인 자유의지는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도 신앙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유한한 지혜에 따라 즉시 응답된다면 고통이나 슬픔 또는 실망이나 죽음도 없을 것이며 만약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기쁨이나 성공, 부활이나 영생, 그리고 선함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활에서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 번민을 없애 버리고 끊임없는 위로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나 만일 슬픔과 좌절에 이르는 문을 닫아 버린다면 그것은 가장 훌륭한 친구와 은인을 쫓아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고통을 통하여 인내와 자제를 배웁니다.”(기적을 낳는 신앙, 97-98페이지, 스펜서 더블류 킴블)

주님께서서는 장로들이 병자에게 안수할 때 만약 그 사람이 죽으면 주 안에서 죽는 것이요, 살아나면 주 안에

서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들이 죽어 저들을 잃게 되었을 때 눈물흘리며 특히 영화로운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자를 위하여 슬퍼하라. 내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음이 저들에게는 단 연고라. 거듭 말하거니와 나를 믿는 신앙이 있어 나를 줄로 믿고 또 죽기로 정해지지 아니한 자는 병 고침을 받으리라.”(교성 42 : 45, 46, 48)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나는 내 일을 하는 동안 아내가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되리라는 생각으로 마음에 평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내게 선교부 방문을 계속하라고 권하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 곧 회복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심한 고통을 느끼지 않았으며 선교부장 내외와 많은 훌륭한 회원들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본에 가서 두 개의 선교부를 방문하고는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집을 떠나기 전과 같이 선교 여행을 다시 계획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아내를 축복하시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내는 입원해 있는 동안에 복음을 많은 친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한국에서 비행장과 병원 외에는 아무데도 가보지 못했으나 주님 결의로 갈 때까지 여러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고로 약간 발을 절게 되었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았으며 혼자 걸어 다니며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번에 나와 함께 와서 직접 여러분에게 그녀의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싶어했습니다.

아내가 이곳에 왔다면 자매 여러분에게 남편들이 가진 임무를 성공적으

로 수행하도록 내조와 용기로 남편을 받들라는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을 가르칠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남편 곁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남편은 신권을 지니고 있으며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신권을 통하여 오는 모든 축복과 특권을 남편과 함께 누립니다.



컬리모어 자매의 생활에서 내가 느낀 두 가지 큰 장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감사의 원리에 그렇게 충실한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역경을 통하여 불우한 환경에 처해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사랑과 이해심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자기를 위해 조그만 일이라도 해주는 사람에게 격려와 기쁨의 말씀을 전하고 감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떠한 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못하되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하나

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느니라.”(교성 58 : 21)

컬리모어 자매가 병석에 있으면서 다른 병든 사람들에게 문안 편지와 전화화를 하는 데 보낸 시간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관심을 보인 그녀의 행동은 가장 그리스도다운 행동이었습니다.

주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

다. 어느 밤에는 한두 명 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컬리모어 자매가 공과를 준비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을 보고 곧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서 공과 준비로 것처럼 많은 시간을 보내죠! 어찌서 공과 때문에 염려합니까? 밤에는 한두 명 밖에 없는데.” 아내는 중단하지 않았으며 나는 반원의 생활에서 그녀의 헌신과 세심한 관심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오늘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에게 모든 과제를 성실히 이행토록 말씀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고 복음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얻게 되는 평안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은 계명을 지키므로써 받는 보상입니다. “...곧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화평을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교성 59 : 23) 나는 주님의 평안을 느끼며 또 자신이 행하는 일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란 인정을 받는 일보다 더 자신에게 확신을 주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주님께서는 책순군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 마치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 밭이 시온의 땅(여러분에게는 이곳이 곧 시온의 땅입니다)을 딛고 있어 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의 좋은 것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이요, 땅은 힘을 솟아나게 할 것임이니라.

“또 내 앞에서 충실하고 부지런한 자는 하늘에서 축복으로 관을 쓰게 될 것이요, 저들이 필요할 때에 적지 아니한 계명과 계시를 받게 되리라.

“그러므로 나는 저들에게 계명을 주며 이같이 이르노니, 곧 너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섬기라.”(교성 59:3-5)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 1 : 27)

“모든 일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를 기억하라.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닌 연고니라.”(교성 52 : 40)

또 중요한 성품은 그녀가 맡은 일이나 과제를 최선을 다해 이행한 것입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 일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초기에 우리는 선교부 산하의 어느 작은 지부에 속해 있었을

주님께서는 십계명 중에서 몇 가지를 되풀이 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상기시키신 후에 그의 백성들에게 그가 만든 온갖 창조물과 그의 기쁨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못하되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느니라.” (교성 59: 21) 또 그들에게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이 세상에서는 화평을 주시고 다음에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성 59: 23 참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내면의 영적인 평안이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것은 구세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신 평안이기도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요 14: 27) 또 다음과 같이 언급된 평안입니다. “...왕국의 비밀을 간직한 자는 그 안에 생명의 샘이 있겠고 생명수가 솟아 나와 영생을 얻게 되리라.” (교성 63: 23)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의 평안도 이러한 평안입니다.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사 32: 17)

다윗은 평안에 관해 이렇게 썼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 11: 165)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친 평안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롬 8: 6)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롬 5: 5)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그와 같은 평온을 가르치셨습니다. “내게서 배우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영의 부드러운 길을 걸으

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리라.” (교성 19: 23)

주님이 주시는 평온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시험을 견디어 낼 수 있는 마음의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1839년 3월 리버티 감옥에 있을 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소리 높여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린 큰 휘장이 어디 있나이까?

“언제까지 당신의 손이 가만히 계시며 영원한 하늘에서 당신의 눈 곧 당신의 깨끗하신 눈이 당신의 백성과 종의 피해를 바라보시며 당신의 귀가 저희 울부짖음을 듣기만 하려 하시나이까.

“오 주여, 언제까지 저들이 이같은 피해를 입으며 부당한 압박을 받게 버려 두시며 어느 때에 당신의 마음이 저들에게 향하여 부드러워지시며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동정하시겠나이까?” (교성 121: 1-3)

주님은 그에게 평안과 위로와 격려의 대답을 주셨습니다.

“나의 아들이여, 평안할지이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 동안이니,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만들어 올릴 것이요, 너는 네 원수를 모두 이기리라.

“네 친구는 네 편이 되어 따뜻한 마음과 우정어린 손으로 또 다시 환성을 울리며 너를 맞이하리라.” (교성 121: 7-9)

그후 예언자는 죽음이 다가 오고 있음을 알았던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 가는 어린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내 마음은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나 영혼의 평온이 그를 쓰러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녀가 죽었을 때에도 부모가 복음에 대한 간증과 그 가르침을 통하여 얻게 되는 평온이 바로 이런 평온입니다.

인생의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가 견디도록 해 주는 것은 이러한 평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

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 7)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 메시지는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지상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선포된 가장 훌륭한 메시지의 하나입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삶의 외향적인 일을 추구함으로써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자신에게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나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평안은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오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 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도록 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과 국가가 화평에 이르는 길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왕국을 심는 것입니다.” (테이비드 오 맥케이 대회 보고, 1938년 10월, 133-135페이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간증을 가진 자에게 가장 확실한 평안이 깃들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이 평안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 7: 17)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이며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후 부활하셨으며 인간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과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오늘날 지상에는 살아 계신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권능의 열쇠가 이 교회에 있으며 교회의 가르침과 교리는 참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실하게 알 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간증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며 복음

에 대한 간증을 지닐 때 평안이 오게 되는 것과 같이 사악함과 불의를 지닐 때 분쟁과 불화와 슬픔이 오게 됩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사 48 : 22)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의 자비로 우리가 다시 평안을 누리고 복음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 55 : 7) 에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당물을 도로 주며 약탈물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울

레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 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겔 33 : 15-16)

완전한 회개는 다시 영혼에 평안을 가져 올 것입니다. 엘마는 그의 아들 시블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사흘 밤낮을 심한 영육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지냈으며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비를 간구할 때까지 죄사함을 얻지 못했었나니, 보라 주께 간청하매 영육의 평안을 느끼게 되었느니라” (엘 38 : 8)

주님께서서는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

나 그러한 자는 죄를 범하였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로서 내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나 주가 그 죄를 용서하여 주나니” (교성 64 : 7)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 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교성 58 : 42)

우리가 다음에 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으리라는 확신으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여러분께 드리는 간증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한국 대회, 8월 16일 토요일 오후 모임 말씀

영원한 기쁨을 얻게하는 지침

웬델 제이 애쉬튼

저는 어제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도중에 크고 먹음직스런 포도 송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도착하자 곧 시내에 나가서 그런 포도를 사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호텔에서 몇 발자국 나오자 한 한국 청년이 내게로 다가오더니 “미국인 아니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대답했더니 “도와드릴까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과일 파는 곳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함께 가지죠”라고 말하면서 내 팔을 붙들고 슈퍼마켓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내가 포도와 다른 과일을 살 때까지 청년은 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내가 청년의 이름을 묻자 그는 이름을 말하면서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공학도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청년의 친절함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한국인의 온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과 다른 여러 교회 지도자들께서 가정을 강화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가장 되시는 분들에게 가족의 축복사로서 자녀에게 특별한 경우에 축복을 주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수세기 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축복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리하이였으며 다섯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리하이는 가장으로서 축복을 주면서 야곱에게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 이니라”(니이 2 : 25)고 말했습니다. 경전(표준 경전 4권)은 참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지침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 생활 뿐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까지 계속되는 기쁨입니다. 또한 이 대회에서 말씀하신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은 우리의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에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주는 지침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분들의 권고에 따름으로써 끝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주님의 계획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주님의 영이 저와 함께 해 주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에 대하여 몇 마디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지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생각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주님께서 육신을 입은 그의 영의 자녀를 다시 그의 면전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려고 마련해 놓으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 영의 세계에서 주님께서 이 지상에 나올 기회가 주어진 모든 영의 자녀들에게 이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 계획을 설명하시자 모였던 영의 자녀 중 삼분지 일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삼분지 이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과거에 살았거나 앞으로 세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은 영의 세계에서 그 제언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있다는 것은 곧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 주님은 그의 영의 자녀를 아담을 통하여 이 지상으로 내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아담은 이 지상에 오기 전에는 계획을 알고 있었으나 지상에 오면서 그는 모든 것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는 복음에 대하여 듣고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지상에 온 후에 복음에 대하여 배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을 알지 못하

고 이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을 얻거나 승영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 체제에는 3가지 책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의 모든 인간에게 계획을 계시로 알려 줄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는 몸소 오셨으며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어 아담과 이브에게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아담의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을 거듭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에녹에게 복음을 새로이 알려 주셨습니다. 노아에게도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리 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 친히 절정의 시대에 나타나셔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과 천사가 야벳인에게, 니파이인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으며,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도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주님의 계획에서 두 번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 모임은 부모를 위한 모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모두 오전 집회에서 킴벌 대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부모의 책임에 관하여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인 복음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 하였습니다. 경전에는 그들이 모든 것을 자녀에게 가르쳤으나 악마가 자녀에게 임하여 그들은 이를 믿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를 믿지 않았으며, 그때부터 인간은 세속적이고 관능적이며 악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경륜의 시대마다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그의 자녀를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큰 축복이 임하고 주님의 약속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자녀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빛과 진리 안으로 인도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다른 총관리 역원까지도 그들이 해야 할 자녀 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하는 방법은 주님이 예언자와 다른 의로운 사람에게 계시하신 것이며, 자녀를 가르치도록 부모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을 가르칠 세 번째 책임은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신권 소유자에게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임무를 다할 것을 가르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교회에 이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은 가정 복음 교육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신권 소유자는 성도들을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격려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대관장단을 통하여, 가정의 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모는 자녀를 한자리에 모아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과 내가 수행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진실함을 간증드리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임무를 다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자녀를 구원하게 된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개의 모퉁이 돌

고든 비 힝클리 장로

형 제 자매 여러분, 나는 또 다시 이 자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몇년 전에 나는 이곳 서울에서 한 젊은 부부의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초대를 받고 가보니 이 부부는 단칸 방에서 사는데 그 방에는 몇 점 되지 않는 살림을 넣을 철재 캐비닛 하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것처럼 가난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풍족함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나는 곧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젊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이 아름다운 젊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가정에는 부모의 사랑을 담뱃 받고 있는 귀여운 아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비록 가난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서로에 대한 감사의 정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유덕한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가정에서 또한 번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모든 기혼 남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사랑과 감사의 정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이를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진정한 본질은 자기의 반려자와 자녀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보살핌과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시 127 : 1)라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같은 위대한 집, 곧 가정을 이룩할 때 튼튼한 기초가 되는 4개의 모퉁이 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4개의 모퉁이 돌 위에 가정을 짓고 이끌어 나갈 때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자녀의 생활은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풍요로워지며 또한 여러분은 영원한 즐거움



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첫번째 모퉁이 돌은 상호 존중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왜 이 지상에 왔는지를 알고, 우리가 이르게 될 승리에 관하여 앞으로써 가질 수 있는 존중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물려받은 신성한 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딸도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의 아들과 딸을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딸이 학대받거나 무시당하거나 곤경에 처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크게 상합니다. 물론 가정은 남편이 관리하지만 그러나 결코 오만이나 부질없는 참견이나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교성 121 : 39 참조)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존재는 여러분의 아내요, 여러분의 반려자요, 여러분의 자녀의 어머니입니다. 아내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예의와 존경과 친절과 참다운 반려의 정신에서 우러나오는 존중심으로 아내를 공대하십시오.

아내되시는 자매 여러분, 남편을 존

중하십시오. 남편의 교회에서의 활동을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합당하게 신권을 소유한 남편 곧 가장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아내와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하나님과 함께 수행할 때 그 가정은 참으로 축복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가장되시는 형제 여러분, 신권을 행사하심에 있어서 주님의 권고에 따르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주님은 계시로써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 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가장되시는 모든 형제님들은 이 성구를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권고를 따르고 이행한다면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가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이며,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주님께 더욱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리려는 두 번째 모퉁이 돌은 첫번째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유순한 대답”입니다. 잠언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잠 15 : 1)라는 성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조용한 말은 평화의 언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음성을 높일 때, 아주 티끌같은 견해 차이가 태산만한 대립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화가 나서 서로 큰 소리를 지르는 태도는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로움의 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지막한 소리로 대화하



오고 가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내와 자녀는 참으로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고요한 조그마한 음성입니다. 사랑의 음성, 가정에서의 평화의 음성, 상호 존중의 음성은 조용한 음성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조용한 음성을 갖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

세 번째 모퉁이 돌은 주님께 정직한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굶주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심한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겠다고 주님과 성약을 맺은 자들로서, 정직한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시기 바란다는 말 뿐입니다. 그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베냐민 왕의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셨습니다.

“또한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

라고 약속하셨으며,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경하지 아니하시니,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진대 너희를 축복하시며 번성하게 하시리라...”

더욱 더 내가 너희에게 바라노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축복을 받은 행복한 상태를 마음에 기억하라. 보라, 이들은 세상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범사에 축복을 받으며, 이들이 끝까지 충실할진대 하늘에 영접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이 그치지 아니하는 곳에 거하리다.”

그리고는 베냐민 왕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오 너희들은 이러한 것들이 진실함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라.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모 2 : 22, 41)

주님에 대한 임무를 여러분의 첫째 임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셨습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퉁이 돌은 가족 기도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때때로 일어나는 험한 물결을 잔잔하게 해 줄 수 있는 방편으로 기도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서로에 대

한 감사함을 기도하는 가운데 말하고, 우리의 미약함을 고백하며, 용서와 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영광과 인도와 축복을 간구하시고 또한 하루를 마칠 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날에 한 일을 주님께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고, 지지하고, 보필하며, 격려하고, 도와 주시며, 상호간에 유순하고 품위있는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정직한 십일조와 헌금을 바쳐서, 주님께 자비를 구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로써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축복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만사에서 그렇듯이 결혼 생활이나 가정을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는 복음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행복한 가정, 화평한 안식처, 사랑의 보금자리를 축복으로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축복받기를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용기

바바라 비 스미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와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1977년도 한국에 관한 문화의 정수 공과를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여러 자매님께서 보내 주신 훌륭한 자료를 받고는, 여러분의 나라가 4,300년이나 되는 긴 역사를 지니고 있고, 동방예의지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300년이라는 장구한 문화 전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이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제 겨우 200년 밖에 안되는 문화를 지닌 미국인으로서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조용함과 예의는 4,300년이라는 긴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위대한 품성입니다. 이것은 자제와 극기를 말해 주며,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용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에게 전실히 필요한 것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겠다는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 오게 된 동기를 읽으면서, 저는, 한국이 정치적으로 큰 혼란에 처해 있을 때 젊은 말일성도 군인들이 자기들의 본분을 수행하며 신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는 희생의 길을 밟으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데는 끝이 없는 무한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가 따릅니다. 남자거나 여자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한국 사람이거나



나 미국 사람이거나 간에 누구에게나 극복해야 할 유혹이 있고, 직면해야 할 과제가 있고, 저야 할 짐이 있고, 슬픔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생을 살아 간다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는 힘을 발견하게 되고 화평을 얻게 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덕적인 용기는 인간의 영혼의 가장 본질적인 덕성과 진실함과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용기를 보였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영웅은 도덕적인 용기를 보임으로써 면류관을 얻는 자입니다. 예를 들면, 관능적인 헤롯에게 훈계한 침례 요한이 그러하며, 산헤드린 학자 앞에 선 베드로가 그러하며, 로마 성에 갇혔던 바울이 그러하며, 카테지 감옥에서 순교한 요셉 스미스가 그러합니다.”

오스카 에이 커크햄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에는 두 가지 투쟁이 있으니, 이기적이고 자기만족으로 이끄는 넓은 길로 가는 것과, 부단한 극기와 봉사으로써 영성을 얻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말일성도가 많지 않은 이 땅에서 여러분은 신앙과 간증을 키우고, 교회 조직과 프로그램을 확립시키는 데 있어 끊임없이 목표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쉬지 않고 노력할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실로 모든 행동에서 제자가 되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자매님은 상호부조회 분반에서 큰 용기를 보였습니다. 그 자매님은 피부 경화증에 걸렸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두 차례나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한 병 중에도 자매님은 경전에서 깊은 영감을 얻고자 원했고, 영적인 생활 공과를 계속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자매님은 공과 도중에 쓰러지지 않도록 높은 의자에 앉아서, 커다란 돋보기를 쓰고는 준비한 공과를 가르치셨습니다.

자매님의 뜨거운 신앙에 크게 영향을 받은 반원은 지금도 자매님의 영향력을 간증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공과를 통해서 그 자매님은 끝까지 견디는 데 필요한 힘을 얻었습니다.

자매님을 지켜 보는 가족은 자매님과 다른 고통받는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커졌습니다. 그들은 인생과 구원의 계획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 없는 투쟁과 선악이 있는 세상입니다. 아직 교회가 초기 단계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한국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질 목표는 매우 큼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프로그램대로 수행하고 서로 봉사할 때, 서로의 간증을 키우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여러분의 상호부조회가 강화될 때, 한국의 말일성도 여성이 축복을 받게 되며, 여러분의 훌륭한 모범으로 한국 여성이 모두 축복

을 받게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같은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확실히 압니다.

상호부조회를 통해서 여성은 복음을 배우고 성공적인 사교의 원리를 배우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효율적인 가정 관리 기술을 익히고, 영양과 위생의 원리를 배우며, 가정 생활을 미화시키고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들을 배우게 됩니다.

상호부조회에서 일하면서 한국 여성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선 봉사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수행하는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교회 봉사를 통하여 여성은 상대방을 염려할 줄 알게 되고 도움을 줄 줄 알게 되며, 용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필리핀 군도에 있는 어느 자매님은 방문 교사의 부름을 받고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 자매님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매님은 눈먼 남편과 함께 지명받은 자매님들을 방문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복지를 염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강화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성실히 노력하고 용기있게 생활할 때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은 모두 각자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지역에 따라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봉화불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은 없습니다. 죄와 악에 대항하여 맞설 용기를 지니시겠습니까? 용기있게 살아 가시겠습니까? 신권 지도자의 권고에 따르겠다는 신앙을 가지시겠습니까? 악에 대항하여 싸우겠다는 결단력을 갖고, 주님을 위하여 말일성도 군병으로서 전쟁의 마당에 나가시겠습니까?

구약의 에스더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

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말했다 때, 에스더는 “왕이 금홍을 자기에게 내밀지 아니하면 내가 왕후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서는 유대인이 모두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은 이 땅에 완전한 프로그램을 갖춘 그리스도의 교회를 계속 세우고, 말일성도 가정을 강화하도록 격려하고 축복해야 할 급

박한 시기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는 용기와 확신으로 인생의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도덕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복음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는 확신을 갖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의롭게 생활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200년의 짧은, 그러나 영광스런 역사를 지닌 나의 조국에서도 실천해야 하며, 4,300년의 장구한 역사를 지닌 여러분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갖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구두속에 있는 모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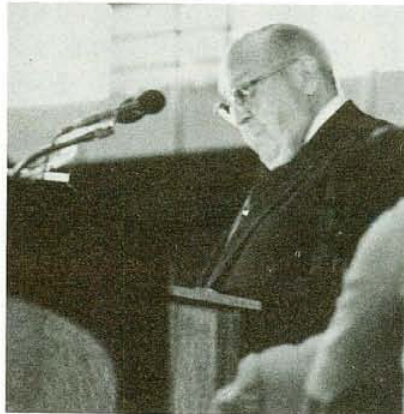
제임스 에이 켈리모어

부모가 되는 우리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적들의 간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간계는 얼마든지 많으나 눈에 쉽게 띄이지 않습니다. 악마는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짓, 섹스, 탐욕, 금전, 사치와 같은 것들이 목적을 성취하는 사탄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유혹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진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큰 죄악인 경우에만 그것을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커다란 잘못을 범했을 때만 회개를 생각하고 복음의 가르침에 엄격하게 일치하지 않는 사소한 행위에 대해서는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생활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서 생각지 않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깨닫고 회개해야 할 일은 사소한 일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을 날이 갈수록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참되지 못하고 잘못된 일이라면 회개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끓는 물에 개구리를 떨어뜨려 죽일 수는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떨어뜨린다면 개구리는 재빨리 뛰어 나와 물에 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서서히 물을 끓이면 뜨겁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나쁜 습관이 배어 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사람이 라디오에서 기자와 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뉴욕까지 도보로 미대륙 횡단을 시작하여 반쯤 되는 지점에 도착했었습니다. 기자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행자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힘겨운 등산과 찢는 듯한 사막의 더위를 더듬어 본 뒤에 다음과 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구두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구두속의 모래였습니다. 그가 당면했던 것은 큰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거의 앗아갈 뻔했던 어떤 위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발바닥에 물집을 내게 한 작은 모래였습니다. 살갗속에 박힌 모래가 한 발 한 발을 내 딛을 때마다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삶을 좌절시키는 것은 언제나 큰 위기만은 아닙니다. 큰 슬픔이나 실망이 아닙니다. 거의가 계속 끓이지 않고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입니다.

부부간에서 볼 수 있는 말다툼과 불신, 무례한 언행과 서로 얽잡아 보는 행위는 점차 존경심을 잃게 하며 무

관심으로 이끌어 사랑을 식게 하고 결국은 이혼으로까지 가게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를 당연히 여길 때, 사소한 일로 질투를 일으킬 때, 부부가 서로 집안의 책임을 맡으려 하지 않을 때, 부부가 서로 조그만 것도 주지 않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나누려 하지 않을 때, 아내의 건강을 염려하지 않고, 아내가 생계를 위해 일하는 남편의 노고를 염려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살갗 속으로 불경이라는 모래알이 깊이 파고 들어 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또 다른 모래알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그 몇 가지를 요약해 주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 : 25-32)

한국에는 아버지의 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이 따로 있습니다. 작년도 아버지의 날에 켈리모어 자매는 아버지로서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열 가지 요점을 적은 편지를 나에게 보았습니다. 그것을 남편과 아버지되시는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쌓아 가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아버지에게 주는 조언

1.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과소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모든 가장이 지역 사회, 국가와 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가정에 가장 먼저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3. 가족의 유대를 두텁게 하십시오. 가족이 모두 함께 일해 보십시오.
4.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십시오. 가르친 것을 실천하십시오.
5. 가족을 위해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도는 여러분이 그들과 보내는 시간으로 측정됩니다.
6. 각 자녀의 개성을 개발시키십시오.
7. 훈계의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의 권위에 사랑이 따르도록 하십시오.
8. 그들의 창의력을 키우십시오. 그들에게 꿈을 키워 주고 상상력을 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9. 영적인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들에게 신앙과 종교에 대한 신념을 일깨워 주십시오.
10. 건설적인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자기

만을 생각하지 않도록 가르치십시오.

모래가 구두 속에 들어갔을 때라고 그 도보 여행자가 대답했던 말에는 한 가지 해결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멈춰서 모래를 털어버려야만 했습니다. 때때로 시원한 시냇물에 피로한 발을 씻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어제의 모든 좌절감을 제거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그러한 것들을 씻어버리십시오. 사소한 분노를 품지 마십시오.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 모래알을 찾아내고 여러분의 머리에서 털어버리십시오. 용서해 주고 잊어버리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마음 속에 품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구두 속에 있는 모래를 털어버릴 수 있게 해 주며,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 주고 영혼에 휴식을 주는 회개의 원리야말로 위대한 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이렇게 잘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찌어다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야고보서 4 : 7-10)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완

전히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구두에서 모든 모래를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에서 모든 좌절을 씻어내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을 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 : 6-7)

주님께서는 범죄의 모래가 우리의 구두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사탄이 너희를 사로잡아 밀같이 철포 치려 하는도다.” (니삼 18 : 18)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강한 유대를 가지며 기본적인 복음의 표준대로 결혼 생활을 영위하며 집회 출석과 훌륭한 가정 교육을 통해 자녀와 강한 유대를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규적인 가정의 밤을 통해 여러분께서 모든 가족에게 계명을 지키게 하고, 복음 생활에서 오는 간증의 힘을 키워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어린이를 가르치라

스펜서 더블류 킴블

행 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참으로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거의 다 들으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이며 이를 통하여서만 가장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는 결혼의 중요성을 무시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장에는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여자인 이브를 지으셨습니다. 또한 아담에게 동산에 나아가서 동산을 가꾸고 모든 농작물을 경작하라고 이르셨습니다. 이브는 남편을 돕는 반려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상대방이 있음으로 해서 완전해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은 남자로서 가정에서 해야 할 특정한 임무를 맡고 있었고 이브는 여자로서 가정에서 해야 할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가정 새활을 이끌어가는 반면에, 이브는 자녀를 낳아 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프로그램이 정해진 이래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결코 변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계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여자가 남자같이 되려 하고, 남자가 여자같이 되려고 했던 때가 종종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간에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원하시기만 했다면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인류를 위하여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게 하셨으며, 남자와 여자를 영원히 결속시키는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자기들이 구하는 최고의 행복을 얻는 것



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을 결혼시키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한, 이것은 결혼의 자연스럽고 합당한 결과가 됩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은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휴일을 즐기는 사람들을 볼 때, 자녀가 부모에게 대한 사랑을 표시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사랑을 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또 다른 계명을 주셨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교성 68 : 25) 부모가 할 일을 다 한다면 그릇된 길로 빠지는 자녀의 수는 극히 적을 것입니다.

부모는 또한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교성 68 : 28)합니다. 가정에서 매일 이와 같이 생활하실 때 자녀들은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위대한 지도자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나의 천사같은 어머니께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사 모임을 방문하여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어 보면 그들은 거의 어머니를 칭송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키우는 데 가장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어머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아버지는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온전한 아버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선교사들 중에는 아버지에게서는 거의 편지를 받지 못하고 어머니로부터만 계속 편지를 받고 있는 선교사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니파이인과 레이벤인의 전쟁의 기사에서 2천명의 레이벤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부모들은 다른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터에 나아가 생명을 빼앗는 행동을 하지 말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와 백성과 그들의 부모를 지켜 보호해야 하게 되자 이 청년들은 모두 단결하여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격심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한 전쟁을 거치게 되면 죽은 시체가 즐비하게 놓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힐라맨이 자기의 부하인 청년들의 수를 헤아려 보니 한 명도 목숨을 잃은 청년은 없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그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대답했습니다. 두터운 신앙을 가진 그들의 어머니가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관리 역원들께서 언급하셨던 가정의 밤을 여러분은 매주 정기적으로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의 밤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리를 함께 해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신권을 소유하고 계시므로 아버지가 가정의 밤을 관리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도와 자녀들이 유아 시절부터 주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칩니다. 부모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매주 월요일 저녁에 가정의 밤을 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협력하여 자녀를 의롭게 키우는 데 협력하고 계십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아 주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와 함께 놀아 줄 때,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에 대하여 갖고 있는 신념을 함당하고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밤 교제에는 게임과 그밖에 재미있는 자료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교제의 내용은 모두 훌륭합니다. 그러나 게임을 하는 데 가정의 밤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정의 밤에서 우리는 자녀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들을 줄 알게 되면 가족 기도에 차례를 맡을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일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위대한 신앙을 갖는 위대한 생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공과를 이끌고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것을 배웁니다. 교사보다 더 많이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과를 가르치는 기회를 자녀에게 줄 때, 자녀는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학교 선생님에게만 맡기시겠습니까? 초등학교나 상호부조회나 주일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도록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되시는 여러분 자신이 이 큰 책임을 맡아 수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가 침례받기 훨씬 이전에 이미 우리 가정에는 담배가 없다는 것을 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는 술이나 커피나 흥차가 없다는 것을 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적은 액수일지라도 십일조를 바치도록 가르치셨습니까? 부모 중에 대부분은 자녀가 스스로 금식하겠다고 결정할 때까지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십일조를 바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와 같이 하고 자 원하게 됩니다. 오빠나 언니가 금식하는 것을 보면 어린 아이는 자기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하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이러한 것을 강요해

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인생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아시면 참으로 놀라실 것입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고, 아버지는 아들이 장성함에 따라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주님께서 이룩해 주신 가정의 밤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바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자녀는 여러분에게서 약점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자녀가 가정 생활에서 본 것의 대부분이 곧 자녀의 생활에 반영됩니다. 부모가 신전을 자주 방문하시는 모습을 보고 성장한 자녀는 신전 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가르침을 받은 자녀는 점점 선교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함당한 모범을 보여 주고 잘 가르칠 때 자녀는 여러분에게 명예와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진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세토록 축복받게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 전달된 가르침입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전해 온 예언자의 가르침입니다. 이는 요셉 스미스로부터 시작된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살았던 모든 예언자들이 전해 주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함당한 모범을 보이시고자 하실 때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축복을 내리실 것을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정 생활과, 하시는 사업에 축복을 기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청소년 - 우리의 소망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청소년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 보며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 딸로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이유로 이 지상에 보내진 귀중한 청소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하시는 바는 여러분이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토록 살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다시 그에게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훌륭한 나라에 세워진 교회의 미래요, 앞날의 지도자요, 가정과 교회에서 닦은 훌륭한 교육과 훌륭한 부모님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악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굳건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계책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엢 6: 11-12)

나는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청소년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평범한 소년 소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택함받은 영으로서 모두 유혹과 책임과 특권이 가장 큰 이 때에 이곳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서 옳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행복하려면 훌륭한 생활을



하고,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한 순간의 쾌락을 위하여 영원한 행복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본부에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의 안타까운 편지가 날아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이름은 밝히지 않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봐서 물몬이 틀림없는 이 소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다시는 저와 같은 쓰라린 경험을 맛보게 될 자매가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죄의 조그만 오점이 생기기 전 즐겁고 자유로웠던 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또 갖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겠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인생에 이같은 슬픔과 파멸을 초래하는 악에 자신이 빠져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제 가슴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 후회와 분노, 제 자신에 대한 실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인생의 가장 가치있는 선물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성급하게 인생의 환희와 쾌락을 얻으려 하였지만 실제로 그것은 저의 손에서 재로 변해 버렸습니다.”

“소녀 여러분, 순수한 생활을 익히며 지내는 것은 여자 친구, 어머니, 가족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 큰 즐거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지킬 때 언젠가는 기쁨과 환희를 맞게 됩니다. 성급하게 그것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 피기도 전에 서리를 맞은 꽃처럼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다운 여성이라는 시험은 그가 정결이라는 법정에 순결한 상태로 설 때 오는 것입니다.

모든 성품은 아름다운 여성의 이 가장 소중한 순결이 그대로 있을 때 더 빛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도덕 기준은 다 한 가지입니다. 청년이라고 하여 여자보다 죄를 더 많이 지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결한 여인과의 결혼 추천을 얻기 위해 감독을 찾는 청년도 역시 같은 순결을 지녀야만 합니다.” (복음 이상, 417페이지)

결혼전에 순결을 지키고 결혼 후에는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늘 나라에서의 도덕의 표준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남자와 여자에게 한 가지 표준을 주었으니 곧 도덕적인 순결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든지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순결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는 개념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끝까지 자기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는 비탄과 슬픔을 몰고 오는 일에 말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도덕하고서는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 여

러분, 여러분은 여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데이트하는 자매에게는 마음대로 할 특권이 있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생활과 현명하고 영광스런 목적으로 마련하신 아름다운 교제를 결혼 성약을 위하여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하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충만하고, 진전하며 즐거운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간증을 지녀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간증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심한 역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강한 간증을 갖고 있는 예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어떠한 일이라도 견딜 수 있으며 아름답고 건전한 정신을 지닐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고 의미있고 즐거운 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이 사업의 신성함과 진리에 대한 간증을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은 간증을 구하고,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모든 자녀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이시라는 것을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간증을 얻기 위하여 생활한다면 반드시 얻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청년이 신권의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나는 교회의 형제가 신권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벨기세백 신권 없이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신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행복을 원할진대 하나님의 신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 훌륭한 아시아 지역에 여러분도 신전을 갖게 되었으니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전 밖에서의 결혼과 신전 안에서의 결혼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신전 결혼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전 결혼은 합당한 부모와 자녀가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영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청소년 여러분과 교회의 모든 회원이 해의 왕국에서 승영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보다 낮은 영광의 왕국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달의 왕국이나 별의 왕국 후보자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청소년은 해의 왕국, 그 왕국에서 가장 높은 영광의 후보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 매일 매일 표준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저 교회만 나가고 신권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누리는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의 모든 표준을 완전히 지켜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 음란이니, 이는 살인 다음 가는 큰 죄악입니다. 부모 덕이라는 기초 위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나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합당한 결혼에 따르는 영광스러운 부모로서의 축복을 부당하게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결혼 생활의 일부인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면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표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고 결혼을 이러한 방법으로 주셨을 때, 그 이상 아무런 예외를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표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난잡한 관계에 빠지면 그로 인한 쓰라린 고통을 면치 못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릴 때에는 비통과 슬픔과 후회와 실망이라는 벌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의 고통을 여러분 자신이 겪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중에 이

미 이와 같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희망이 없다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복음 속에는 회개와 용서라는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참된 회개라야 합니다. 참으로 마음속 깊이 죄를 뉘우쳐서 새로운 생활을 창조하는 회개라야 합니다. 단지 죄의 고백에 그쳐서는 안되고 마음속 깊이 죄를 뉘우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애 통하게 눈물을 흘리는 회개... 마음속 깊이 죄를 뉘우쳐서 완전히 새로운 생을 창조하는 회개라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비와 선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마지막 심판관은 지상의 신권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파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계명과는 거리가 먼 많은 사람이 원하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복용하고, 탐닉의 노예가 되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활기에 차 있고 세상 일에 곧잘 흥분하고 새로운 감정에 도취되는 젊은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지금처럼 사탄이 잘 조직되어 있고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던 때는 결코 없었습니다. 확신하기로는 사탄은 주로 청소년과 우리의 가족과 가정으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유혹은 매우 교활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전혀 꿈도 꾸지 못하는 유혹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오늘날처럼 많은 유혹과 함정과 위험이 교회 회원들의 의무의 길에서 뛰쳐 나오도록 유혹하는 때가 없었습니다.”(자신을 주의하라 127페이지) 그는 “이 세상은 좋아지지(같은 책 207페이지)않을 뿐 아니라 악이 만연해 가고 있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악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슬프고 비통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악마는 우리의 문학과 예술, 영화와 라디오, 의복과 춤, TV화면, 심지어는 현대의 대중 음악에까지 파괴적인 힘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갖은 수단을 다 부려 우리의 가족과 가정 특히 청소년을 파멸로 이끌려 합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의 귀중한 청소년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악마의 파괴적인 힘이 우리의 주변을 완전히 에워 싸고 있으며, 이것은 현대 음악, 현대 예술, 성 도착 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은 마약(엘 에스 디, 마리화나) 등에서, 청소년을 위한 잡지나 비밀 간행물에서, 텔레비전에서, 영화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호색 문학에서, 도덕적으로 파괴적인 표지의 책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 기록하고, 정신을 고취시키고, 순결한 것은 거의 위협을 받고 있거나 바람에 날려 버린 것같이 생각됩니다. 어제의 표준은 기억에 전혀 없었던 것처럼 무시되고 있습니다. 나는 세계 각국을 여행한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사탄이 이처럼 강하고 조직적이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이처럼 크게 도전을 받은 때는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힘과 용기와 신앙이 이처럼 절실히 요구되었던 때도 일찍이 없었습니다.

니파이서서 28장에서 주님은 예언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 날에(이것은 바로 오늘날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악마가 인간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일으키며 선한 것에 대하여 성을 내도록 책동하며, 많은 다른 자들을 달래어 육욕의 안식처를 좇게 하며 이르기,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며 모든 것이 잘 되리라 하고 하니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 또한 보라, 다른 자들을 달콤한 말로 꾀어 저들에게 지옥이 없다 하며 이르기, 악

마란 없는 것인데 나는 악마가 아니라 하며, 저들의 귀에 속삭여 말하기를 저들을 움켜 잡아 무서운 사슬로 얽어 뱀 때까지 하며, 그때로부터 저들은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리니, (니파이서서 28 : 20-22)

이 말씀은 오늘날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여러 국민의 기가 되게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 : 16)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젊은이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 주님이 지지하신 대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기회와 책임과 부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교회의 청소년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대로 모든 면에서 합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이며 특별한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늘날 우리 청소년은 여러 면에서 특별합니다. 복음대로 생활한다면 분명히 그 표준에 있어서도 특별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의 표준과 가르침과 이상에 따라 생활하기 때문에 참다운 인간으로 헤아림을 받는 사람 가운데서 당황하게 될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모방하려 하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거짓된 표준에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적인 표준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는 반드시 앞으로 올 날을 예비하고 기다리면서 가장 높은 표준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일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주

님은 여러분의 성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악한 세대라 하여도 이는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고난이 없는 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문제와 실망과 비통을 겪을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발전하는 곳은 성공과 안일의 정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때로는 역경과 실의와 패배의 골짜기에서 강한 인격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생을 만족스럽고 즐거운 생으로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 거는 우리의 소망을 말씀드리니, 곧 여러분이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얻기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 현세와 영원을 위한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에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전에서 결혼을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은 그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청소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그 길을 따르고, 쇠막대를 굳게 쥐고, 신앙에 충실하며, 주님께서 그의 교회에 세우신 표준을 지키고, 안전하며 승영에 이르는 길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청소년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 지상에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권능과 권세가 또한 지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생활한다면 여러분은 부되고 성공된 생을 누릴 것이며,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의 왕국에서 승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승영에 이르기를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합당한 선교사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준비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어제 저녁 훌륭한 모임을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밤 피터슨 자매와 숙소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재능 발표는 미국에서는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했던 훌륭한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저녁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200여명의 합창단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천사의 음성과도 같았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모두 천사이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킴벌 대관장님께서 형제 여러분에게 선교사가 되도록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대관장님께서 단순히 더 많은 선교사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보다 훌륭하게 자격을 갖추고 보다 잘 준비되고 보다 영적으로 많이 훈련된 젊은이를 요구하신다는 점을 아셨을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여러분께 제가 총관리 역원으로서 선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동안에 얻은 가장 소중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 감독단은 훌륭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교사로 일선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바치는 젊은 남녀와 함께 나누는 경험보다 더 저를 기쁘게 해주거나 영적으로 고조된 상태에 이르게 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지상의 어떤 다른 집단에게도 주어지지 않을 축복이 선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교사는 특별한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서는 흔히 하지 않을 특별한 일을 그들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의로운 선교사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권세와 권능을 갖게 됩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은 주님의 사업 중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몇 년 전 나는 미국의 한 와드의 감독이었습니다. 우리 와드에는 말일 성도라면 마땅히 그와 같아야 할 모범적인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원이 아닌 십대의 한 소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십대의 소녀는 키가 먹었으나 입술 움직이는 것을 보아 말을 알아듣는 법을 배워 그녀 앞에서 말을 하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아 들었습니다. 그녀는 심장병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소녀와 운동도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은 그녀에게 친절과 사랑을 보였으며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물론 청소년들의 이같은 태도에 감사했고 그들의 모범을 존경했습니다. 얼마후 그 소녀는 선교사들과 공부하게 되었으며 배운 것을 모두 믿게 되어 부모에게 칩레를 받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들도 복음 토론에 참여했지만 소녀와는 달리 진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딸에게 칩레를 받도록 허락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토요일 오

후에 칩레탕 가에 모여 이 커머거리 소녀가 칩레를 받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칩레를 받은 후 이 소녀는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 안수를 받아야 했는데 선교사의 부탁으로 나도 확인 안수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나는 그 소녀가 안수하는 선교사의 입술을 보지 못하므로 확인과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선교사가 이 소녀를 교회 회원으로 확인할 때 그의 말을 매우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안수가 끝난 다음 그녀에게 선교사의 축복을 들려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나의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 선교사가 가능하다고 믿기 어려운 축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는 자기가 소녀에게 준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리라는 완전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확인과 축복이 끝난 다음 이 소녀를 나의 사무실로 오도록 했습니다. 내 앞에 앉아 있는 그 소녀에게 “넌 시. 자매님, 선교사가 자매님께 축복해 주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는 나를 쳐다 보면서, “감독님, 그 축복 모두 들었어요.”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넌시 자매는 완전히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커머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자매는 배구도 소프트볼도 정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장병도 역시 나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병고침은 그 선교사의 신앙과 간증과 확신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합당한 선교사들과 그 선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흔히 허락하지 않는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언자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바



와 같이, 온 세상에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준비를 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지상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특별한 소명인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각자는 모두 특별한 사람입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또 모두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젊은이의 집단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장래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매님께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의 소망이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합당한 신권 소유자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합당한 신권 소유자가 아닌 남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진 결혼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도록 주님께 매일 기도하시고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모두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해야 하는 것에 기도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항상 즉시 오는 것만이 아니라 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때때로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고 그 응답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간증드리노니,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다. 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1975년 8월 16일 한국 대회 토요일, 청소년의 밤 말씀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사랑하는 청소년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특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께 말씀해 주실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분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의로운 일을 행함

데오도르 엠 버튼

한국의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단테 카브리엘 로세티라는 유럽의 한 화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늙은이가 화가로 이 화가를 찾아와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기 그림을 몇 점 내 보이면서 솔직한 평을 듣고자 했습니다. 화가가 그의 그림을 보니 전혀 예술적인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친절하게 그 그림에서 전혀 가치도 재능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다시 코트 속에서 몇 점의 그림을 꺼내 펴 보이고는 작품 평을 원했습니다. 노인은 이 그림이 한 젊은 학생의 그림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화가는 그 그림에서 놀라운 재능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 젊은 학생의 재능과 잠재성에 대해 극구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데려 오면 그를 가르쳐 훌륭한 화가로 키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늙은이는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젊은 학생이었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는 젊은 시절에 좋은 기회를 다 허비하고 재능을 키워 나가지 않았습니다. 천부의 은사를 타고 났으나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는 대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으며 훌륭히 키워 줄 훈련을 의뎠었던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같은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이 권위와 규율에 거역함으로써 그들의 본능적인 욕망에 영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완전한 독립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독립을 원하는 것은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젊은이가 갖게 되는 자연적인 느낌입니다. 그것은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때에 훌륭한 것이나, 잘못 이해되어 그같은 마음을 올바르게 통제하지 못할 때 나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기호만을 좇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범한 실수를 그도 따라 저지르게 됩니다. 훌륭한 친구나 부모나 교사의 가르침에 따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다른 사람이 범한 잘못을 알게 되고 따라서 불행과 슬픔을 가져다 준 그같은 일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다른 사람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이건 우리가 그 사람을 따른다면 그 사람이 이미 범한 실수나 혹은 범하게 될 실수를 우리도 범하게 됩니다. 순종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순종 그 자체만으로는 잘못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원리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 순종은 완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원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배울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는 어떻게 하여 잘못을 범하지 않고 완전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의 지식을 얻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30

또 한 번은 예수께서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49-50

요약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뜻에 좇기 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는 인간이 범하는 잘못을 피하셨습니다.

완전하시며 태초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을 모범으로 택하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일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식은 기록이나 부분적인 사실이나 또는 어떤 한정된 지식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영원한 지혜와 경험과 지식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를 때 결코 헛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길과 지식을 우리의 길과 지식에 비교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이사야 55 : 8-9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버지의 지시에 따르는 동안에 잘못을 피할 수 있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를 따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와 모범에 순종하라고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즉 경험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즉 이 순종의 원리에 따름으로써)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교”

히브리서 5 : 8-9

이 말씀은 청소년에게, 그리고 청소년을 가르치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활에서나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받드

시 따라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대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기록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또 다른 증거로 물문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와 우리가 따라야 할 방향을 알게 됩니다.

둘째,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우리에게 조언과 충고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분들의 지시에 따를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가르침은 영원한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오늘날의 실정에 맞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이 금번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예언자에게 알려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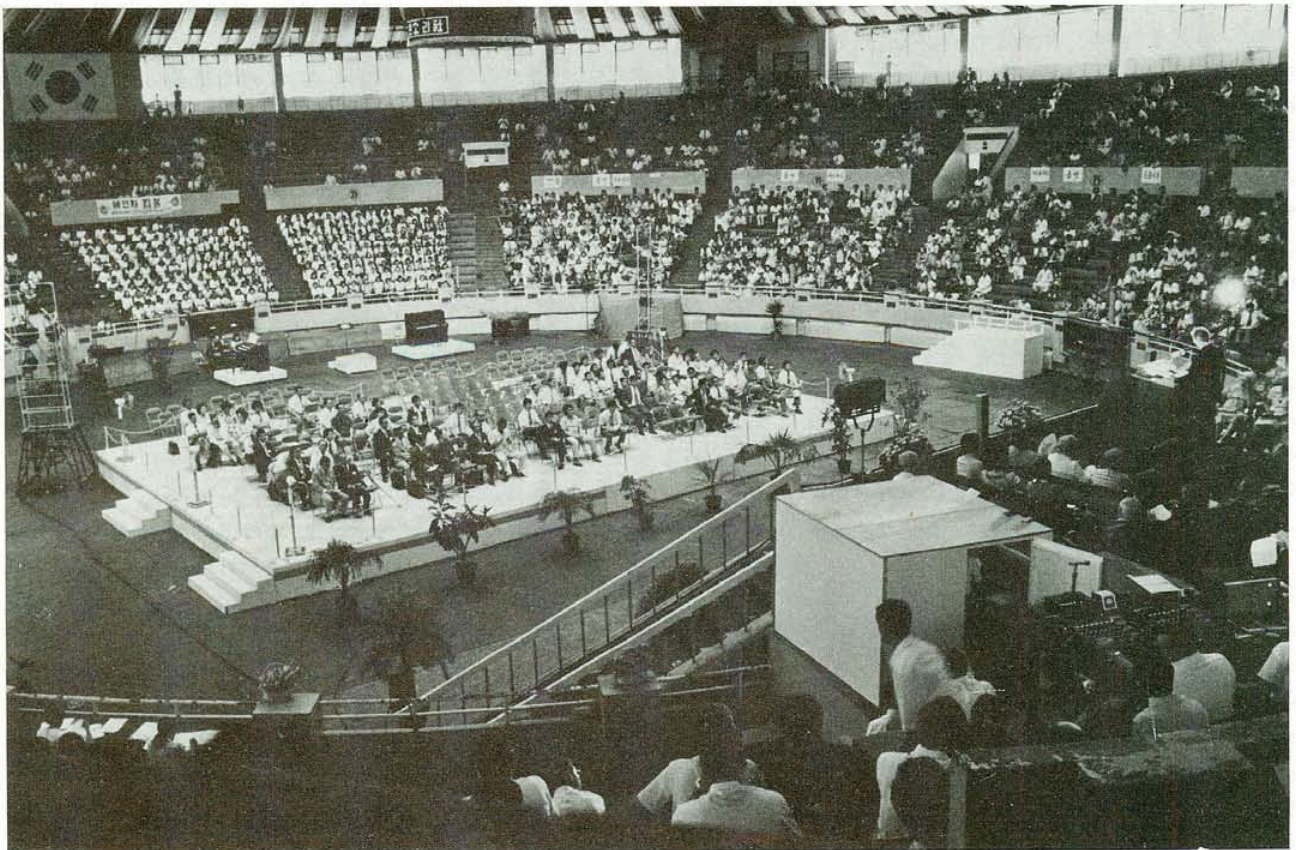
기도와 개인이 받는 영감에서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기도로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개인적으로 알려 주십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사탄이 너희를 사로잡아 밀같이 채로 치려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라. 너희가 반드시 주시리라 믿으며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보라 너희에게 주시리라.”

니파이삼서 18 : 18-20

이 세 가지 열쇠로 여러분은 마음 속에 생기는 모든 의문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제능과 은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다운 원리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순결하고 합당하라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라

김볼 대관장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을 종관리 역원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언자의 음성”이라는 찬송을 여러 번 부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는 살아 있는 예언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고하신 많은 예언자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생을 두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 경전을 읽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언자들이 모두 한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듯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단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침례를 받고, 확인을 받고, 안수례에 의한 성신의 은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 옳고 그름을 알리기 위한 예언자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형제되시는 여러분 중에서 신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그 신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신의 은사를 줄 수 있는 권능을 지닌 자로부터 성신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성신의 은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똑 같은 말을 할 수 있으나,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8세가 되어 침례를 받는 어린이는 아직 8세의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이가 장성하고 배우고 합당한 자가 되도록 노력할 때 성신의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성신의 은사는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만한 때 조금씩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생이 훌륭한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여러분은 점차로 성신의 은사를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는 매달 첫주 일요일 금식 간증회에서 청소년, 심지어는 아주 어린 소년, 소녀들까지도 간증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간증은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의 간증처럼 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간증은 나무처럼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어릴 때는 흔들리기 쉽고 조그마하고 움직이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로 간증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나무는 뿌리를 땅속 깊이 박아 꽂고 크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침례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신을 통하여 간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성장하고 간증을 받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나는 14세 때 성경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교회 본부 역원이 되시는 자매님 한 분이 이와 같은 대회에서 경전을 읽도록 권고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매님께서서는 경전을 읽도록 권고하신 후에, “성경을 완전히 읽어 보신 분은 손을 들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읽

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약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나는 성경을 완전히 읽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 주위를 둘러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손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되시는 분들도 성경을 통독하신 분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스펜서 김볼, 너는 경전을 읽어야 한다”하고 외쳤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곧장 집으로 달려 가서 이층나의 작은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냥불을 켜서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페이지 수도 많고 장수도 많았습니다. 어찌다가 짧은 장이 나오면 꽤나 좋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읽어가면서 나는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좋아하게 되었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 내 기억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담으로부터 계시자 요한까지 모두 많은 예언자들이 같은 가르침을 전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요약한다면 “순결하고 합당하라.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당대의 한 사람은 약 32명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주로 세 아들 곧 가인, 아벨, 셋에 관하여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담과 이브가 그의 자녀를 모아 놓고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가르쳤으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읽고 쓰고 공부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담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자녀들에게 매우 훌륭한 교사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담이 그의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생각컨대, “애들아, 너희는 청결한 생활을 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멀리 하거라.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거라.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취하지 말거라. 친구에게 친절하고 사려깊어야 한다. 너희의 몸과 정신을 청결하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규례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남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며 자유와 묵인으로 생기는 약점을 보이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제신 여러분 중의 대부분이 이 과정에 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총관리 직원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지상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 놓으신 발자취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오전과 오후, 그리고 이 저녁, 그리고 내일 동안 하시는 총관리 직원 말씀에 관하여 혹시 의심이나는 점이 있거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였다가 월요일 저녁 가정의 밤을 가질 때 여러분의 부모님께 설명해달라고 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기타 여러 나라와 다른 점이 많이 있겠으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근본적인 점은 순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각기 나라에 따라 구에 방법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 또는 습관이야 어떻든, 우리는 항상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그어 놓고, 각자의 인생에 부도덕하거나 추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예언자가 이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에게 가르쳤고 이삭도 그의 아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야곱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 두 아들이 모두 훌륭했던 것은 아니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일생을 관찰하시면 그의 부모가 그를 의롭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요셉이 매우 준수하게 생긴 미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어 애굽 상인에게 팔았을 때, 요셉은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의 성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만, 악이 그곳에 뿌리박혀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크게 신임했으므로 요셉에게 많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셉을 유혹하려 했던 보디발의 정숙하지 못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녀는 많은 재능과 취미를 갖고 있는 세상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출타한 틈을 타서 정절치 못한 행위를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외모가 뛰어난 젊은 청년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배운 것과 똑같은 명예, 진리, 순결, 의로움을 배우며 자랐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녀의 은갓 의복과 보석을 보이며 유혹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훌륭한 부모님은 요셉에게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를 유혹하려 했을 때, 요셉은 “안됩니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요셉의 그러한 대답을 비웃으면서 계속 그를 유혹하였습니다. 마침내 요셉을 유혹할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요셉을 강제로 굴복시키게 하려고 요셉의 옷을 움켜 잡았습니다. 요셉은 제빨리 뛰어 나왔지만 그녀가 옷자락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옷자락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젊은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도 어이없는 거짓말이지마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믿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가 유혹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감옥이 가장 편한 곳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하게 됩니다.

요셉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애굽에서 요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은 생애를 통하여 그가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순결했고, 나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였으며, 나는 명예를 지켰다’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 오늘 저녁 총관리 직원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매주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신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선악을 가릴 줄 압니다. 여러분 자신과 맺은 약속 곧 “나는 항상 복음과 복음이 가르치는 모든 아름다운 것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청소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이 교회에 속하고 있는 청소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부모님은 회원이 아닌데도 교회에 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프로그램에 따라 생활하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받도록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신권과 복음의 성약

매리온 지 롬니

형 제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신권과 복음의 성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잠시 성약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약은 계약이요, 계약은 둘 이상의 단체간의 동의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성약을 맺어야 한다면 나는 여러분이 내게 뭔가를 약속하는 대신으로 나도 여러분에게 뭔가를 약속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여러분에게서 자동차를 사기로 계약을 하고, 또 여러분은 그 금액을 받고 자동차를 주기로 동의한다면, 그것이 바로 계약이요 성약인 것입니다. 신권의 성약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께 약속했으며 그 약속에 대한 댓가로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십니다. 신권에는 많은 성약이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07편에 기록되어 있는 신권에 관한 위대한 계시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관리하는 회장의 의무는 구십 육명의 장로를 통할하며 저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며 성약에 따라 저들을 가르치는 것이니라.” (89절)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하는 목적은 이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성약에 주의를 기울이자라는 데 있습니다.

“너는 인간의 자녀들에게 보낸 나의 영원한 서약 곧 나의 복음의 충만함을 받아들였으니, 복이 있도다” (교성 66 : 2)라고 윌리엄 이 블레른에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은 위대하며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약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성약은 지구가 창조되기 전 천국 회의에서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계셨던 주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

리는 내려가자... 우리는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더욱 더하여 질 것이요,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첫째 지체를 지킨 자들과 같은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리라. 또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리라.” (아브라함서 3 : 24-26)

삼분지 일의 영이 이 성약을 거부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지상에 온 우리는 그 성약을 받아들인 영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세상과 영의 자녀의 창조는 가장 완전한 질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질서의 한계와 영역은 변경될 수 없게 정해졌고 영의 자녀는 첫째 지체에서 자발적으로 이에 따랐으며 우리의 첫조상도 지상에서 이 질서에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진리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정사 6 : 51)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리라” (아브 3 : 26)는 보상을 받을 자는 누구나 다 복음의 성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특별한 성약을 맺으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니 헤아릴 수 없이 너를 축복하여 네 이름이 만국 백성 가운데서 크게 되게 하리라. 너는 네 자손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고 네 자손은 만국 백성에게 성역을 베푸는 직분과 신권을 지니리라.

“나는 네 이름을 통하여 저들을 축복하리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네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네 자손으로 헤아림을 받아 일어서서 너를 저들의 조상으로 축복하리라.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속의 구원을 받으리니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 곧 영생의 축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서 2 : 9-11)

이러한 성약을 새롭게 맺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에게 “성약의 자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주님과 맺게 되는 첫번째 복음의 성약은 칠례의 성약입니다. 엘마는 이 성약의 본질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빈아다이의 가르침을 믿은 엘마와 다른 사람들은 광야로 도망하여 “물몬이라 일컬어지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엘마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저가 우리에게 이르기를 보라 이곳에 물몬의 샘이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

며...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죽도록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할진대...

“...주가 너희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도록 너희가 주를 반들어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주의 이름으로 침례받음에 꺼릴 바가 있겠느냐?”(모사이사서 18 : 7-10)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20편 37절에서 침례의 성약에 관해 똑같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침례의 성약이란 것처럼 중요한 것이므로 주님께서는 교회 회원이 매주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뻑하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배 성찬을 바칠지어다”(교리와 성약 59 : 9)

매주 성찬식을 갖는 것은 이 계명을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정해 주신 성찬 축복문은 침례 서약에서 다짐한 바를 구체적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니 이 떡을 먹는 사람마다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 저희들이 기쁘게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어 항상 그를 생각하여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킨 것을 당신 앞에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도록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케 하소서. 아멘.”(교리와 성약 20 : 77)

주님의 많은 계명들은 구체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는 성약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십일조를 예로 들어 봅시다.

“너희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

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말라기 3 : 10-11)

십일조의 성약에 순종치 않으면 큰 축복을 잃게 됩니다.

“보라, 인자가 올 때까지는 오늘이라 부르리니, 진실로 지금은 희생의 날이요,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날이라. 십일조를 바치는 자는 인자가 올 때에 불에 타지 아니하리라.”

(교리와 성약 64 : 23)

“만일 나의 백성이 이 율법을 지켜 거룩하게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 이 율법으로써 내게 시온의 땅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그 땅은 너희의 시온이 아니니라.”

(교리와 성약 119 : 6)

또 다른 구체적인 성약이 지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

든 성도는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 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리와 성약 89 : 18-21)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멸망의 천사”가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도록 하기 위해 애굽 전역에 걸쳐 인간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게 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멸망의 천사는 현대의 경전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약속이 주어지기 2년 전에 주님께서는 “천사들이 가라지를 모아 대워버리려고 세상을 추수하라는 큰 명령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38:12)

그 약속이 주어지기 약 두 달 전에 주님께서는 거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은 발에 가서 거두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 보내 주기를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러나 주께서는 저들에게 이르시기를, 아직 잎이 부드러우니, ...가라지를 뽑아내지 말라. 너희가 밀까지도 상할까 하노라.”

(교리와 성약 86 : 5, 6)

1896년에 우드럽 대관장께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신 뒤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온세상 사람에게 밝히노니 그 천사들이 나아가 그들의 일을 시작할 때 그 날이 임하리라는 간증을 드립니다.” (교리와 성약 주해서, 202페이지)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보상은 실로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신권의 성약

가장 큰 동기와 감동을 불러 일으켜 주는 성약이 바로 “신권 맹세와 성약”입니다.

이 성약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 이 두 신권을 얻고(주님께서는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저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교성 84 : 33-34)

그 약속은 또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나를 받아들이는 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임이라.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니,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 (교성 84 : 35-38)

그와 같이 신권을 받고 그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은 훌륭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인용하여 그 이유를 알아 보겠습니다.

“이것은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의 아버지의 이 맹세와 성약을 받아들이나니 아버지께서 이를 깨뜨리실 수도 없거니와 변경될 수도 없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84 : 39-40)

주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데는 추호의 의문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할 때 오는 결과란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약을 받아들인 뒤에 이를 깨뜨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리라.” (교성 84 : 41)

이제까지 상고해 본 성약을 준수하면 신전에 들어가 승영에 이르는 데 필요불가결한 더 높은 의식과 성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의 왕국의 결혼의 새롭고 영원한 성약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그외의 다른 성약들은 신권을 소유한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장로 정원희 회장은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장로의 직분을 관리하는 회장의 의무는 구십 육 명의 장로를 통할하며 저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며 성약에 따라 저들을 가르치는 것이니라”

(교성 107 : 89)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 주셔서 우리가 맺은 모든 성약과 의무를 성실히 지켜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신권의 권세

마빈 제이 애쉬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이라는 말로 인사할 수 있으니 기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스러운 신권을 소유하고 계신 형제 여러분, 저는 잠시 동안 바로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큰 권세, 즉 큰 은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인 신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께서는 이 위대한 책임과 명예의 중요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권세, 이 힘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권 지도자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함으로써 여러분의 신권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군인 형제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권은 우리 교회에만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계약이나 한계선이 없는 권세입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세를 합당하게 행

사할 때, 땅에서 매번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와 남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교회에서 갖고 계신 부름이나 책임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신권은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영원히 존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합당한 아버지, 합당한 남편으로 헤아림을 받아,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와 가족과 함께 이 신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일생 동안 여러분의 신권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킴블 대관장님께서 고대 요셉의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셨듯이, 요셉이 부모로부터 받은 가르침과 계명을 불순종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감옥으로 가는 것이 더 편안했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권과 의로움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제가 앞으로 어떠한 직분을 맡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신권으로 아버지와 남편과 자녀로 영원한 가족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께 간증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소유하고 계신 신권은 영원한 것이며, 신권을 의롭게 행사할 때 기쁨과 힘과 큰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여러분의 신권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생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고 있는 신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생활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되며,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신권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신권의 권세로 왕국을 건설하고, 그리하여 큰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증드립니다. 아멘.



신권의 축복

스펜서 더블류 킴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모임은 우리가 기다려 오던 모임입니다. 많은 모임 중에 이 모임이 가장 중요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방금 애쉬튼 형제님과 롬니 부대관장님으로부터 기본되는 진리에 대하여 들으셨습니다. 나는 그분들의 말씀에 몇 가지 나의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스테이크의 축복사께서 이 단상으로 잠시 올라 오셔서 제 곁에서 제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한국민을 위한 축복사이십니다. 이분은 주로 스테이크를 위한 축복사이십니다. 스테이크에서 합당하게 추천을 받아 온 사람과 선교부에서 오는 사람에게 까지도 축복을 주십니다. 이분이 담당하고 제신 스테이크 회원들은 이분이 찾아 오게 할 것이 아니라 이분을 찾아 가서야 합니다.

이분은 앞으로 한국에 많이 있게 될 축복사들의 선구자입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한국 땅에 앞으로 많은 스테이크가 조직될 것을 예견합니다. 모든 스테이크에는 한 명 이상의 축복사가 제됩니다.

그분은 그분에게 축복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계시를 전하는 예언자이십니다. 그분은 각자의 혈통을

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각자의 일생을 위하여 예언자적인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이 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분이 주시는 축복은 조건부 축복입니다. 그분의 축복은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다른 축복들과 같이, 합당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때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완전히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축복이 모두 성취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온전히 의무를 다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 축복은 없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11세였을 때 나의 아버지는 나를 축복사에게 데려가서 축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영국에서 건너 오신 분으로 백발이 성성한 조그만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축복사로 일해 온 경력을 가진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은 내게 몇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생활하면 모든 축복이 성취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킴블 형제여, 그대는 장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리라. 그러나 특히 레이맨인에게 전파하게 되리라. 그대는 또한 레이맨인들이 일어나 조직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때 내 나이 11세였습니다. 어떻게 그분에게 앞길을 아셨겠습니까? 그분은 주님의 영을 느껴셨고, 주님이 그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생각을 음성으로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19세가 되었을 때 나는 선교 사업을 떠났습니다. 나는 스위스 독일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으면서 스위스나 독일에는 아메리카 인디언

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세계 제1차 대전으로 인하여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인디언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던 곳은 많았습니다. 미국에는 약 6천만 명의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미주리주로 이동받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축복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주리주에서 2년 반 동안 생활하면서 인디언이라고는 한 명도 보지 못하고 결국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인간인고로 “축복 사님이 실수를 하셨는 모양이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결혼한 후에 고향에서 일하면서 가정용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인디언이라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파치 인디언 보호 지역이 멀지 않았었습니다. 도대체 내게 주어진 축복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스테이크 서기였었고, 다음에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였다가 스테이크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까지도 인디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십이사도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아 솔트레이크 시티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다시 의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 나이 이미 48세였습니다. 그런데도 인디언에게는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트레이크시티로 이사해 오자 대관장님께서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부르시더니 레이맨인을 위한 위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얼마 되지 않아 대관장님께서 다시 나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인디언 프로그램의 위원장을 맡아 주십시오.” 마침내 내게 주어졌던 축복사의 축복이 성취되었습니다.

축복사님은 내게 얼마 동안이나 걸릴 것인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단지 기다리면서



나의 부름을 성실히 수행할 때였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부름받은 대로 거의 전 세계를 다니며 전파했다는 것을 이곳에 오신 총관리 직원들이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나보다 더 많은 인디언에게 전도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자랑하려고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축복사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모두 성취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서 참으로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 중에서 축복사의 축복을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으신 분은 축복사의 축복문을 자주 읽으십니까? 여러분은 축복사의 축복문에 대하여 기도하고 연구하십니까? 아니면 잘 접어 두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 놓고 계십니까? 축복문을 복사하여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형제 여러분의 대부분이 벨기세덱 신권 소유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칠십인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장로 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훌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까지 내려 온 신권의 권능선을 알고 계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신권 성임을 받았고, 나의 아버지는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에게서 성임받았습니다. 나는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에 의해 대제사와 사도로 성임되었습니다. 내가 사도로 성임되었을 때, 나는 사실상 교회 대관장으로 성임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모든 십이사도가 다 그렇습니다. 현재 교회에는 15분의 사도님이 계십니다. 교회 대관장, 그의 두 보좌, 그리고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 모두 사도이십니다. 이 모든 사도님은 필요할 때 대관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미 부름을

받아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중에 한 분이 대관장이 되실 때, 어떤 다른 권능이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왕국의 열쇠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큰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15명만이 사도로 택함을 받아 정원회에 속하게 된다는 조건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두 명의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두 우리가 받은 부름과 똑같은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32편을 거듭 읽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제 우리의 생의 여러 단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있었다가 육신을 입고 지상에 왔으며, 죽은 후에 다시 영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이 분리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생활했으면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생활했고 신전 의식을 행했으며 가족의 책임을 온전히 이행하였으면, 우리는 천사 이상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모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신전에 가서 나의 아내와 자녀를 인봉하였나? 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신권을 존중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신 적이 있으니까?

다시 권능선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나를 사도로 성임하신 분은 교회 대관장님이셨던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거의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모든 열쇠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역시 교회 대관장단의 일원이셨던 조지 큐케는 형제님으로부터 성임되었습니다. 케논 형제님은 교회 대관장이셨던 브리감 영 대관장님으로부터 성임을 받으셨으며, 브리감 영은 요셉 스미스와 세 목격자에게서 성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요셉 스미스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모든 열쇠를 쥐고 계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열쇠를 받았

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권능을 주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뜻하신 바대로 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같이 막중한 권능과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나는 두려움을 느끼며, 때때로 우리가 너무 미약하고, 이 권능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히브리서를 읽으셨습니까? 자세히 거듭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신권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신권과 똑 같은 신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고 순결하게 지켜야 하며, 행동을 고상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86명의 주요 지도자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숫자가 수천에 이를 것입니다. 한국에 벨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836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장로나 그 이상의 직분을 맡고 계십니다. 아른 신권 소유자는 2,137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수많은 스테이크가 조직될 날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같은 수백, 수천 명의 형제들이 스테이크 부장으로, 고등 평의원으로, 감독단으로, 축복사로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테이크를 조직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교회 성도의 수이고 둘째로는 지도력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산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에 12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의 수는 1,273명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모두 그들의 아버지와 지부, 선교부, 스테이크 지도자들로부터 훌륭하게 배워 이 나라의 발전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이 나라에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회원이 모두

가족 단위로 교회에 나오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악수를 나누었던 형제님 중에 한 명은 가족 27명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모임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까만, 여러분 중에 선교 사업을 하셔야 할 분이 수백 명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매님이나 부부도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사람들에게 나가서서 복음을 전파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군복무를 수고하시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께서 맡고 계신 사명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미국 내에는 외국에서 군복무를 수행하면서 군인에게 복음을 들고 개종하여 침례받은 훌륭한 청년들이 수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이 아닌 이곳으로 보내진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보셨습니까? 아마 주님께서도 여러분만이 복음을 전해 줄 수 있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속하신 여러분은 모두 선교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특별히 성별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써 회원이 되고, 또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1830년 교회가 조직되었을 때, 회원의 수는 6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일리노이주에 상당한 수의 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 시카고 주민의 수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왜 그와 같이 급속히 회원 수가 늘어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들어 온 회원들이 복음을 통해 기쁨을 느껴 자기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그룹을 지어 잇달아 들어 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이후 사도들이 전파하던 것과 같았습니다. 오순절날 사도들이 설교를 한 후에 3,000명에게 침례를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3,000명에게



침례를 줄 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물이 다 없어지더라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바다에는 얼마든지 물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롬니 부대관장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잠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권은 전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권이란 잠시 갖고 있다가 잃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를 받을 때는 성약을 맺어야 합니다. 롬니 부대관장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약에 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계명대로 생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손

을 들고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겠노라고 서약했습니다. 신권을 트렁크나 실함 속에 넣어 두지 않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신권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이 신권은 황제나 왕이나 통치자의 권세보다 더 강합니다. 신권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를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유럽에 있는 선교부를 방문했을 때 나는 브뤼셀에 있는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면도를 하려다 보니까 거울이 이상스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한 크기의 거울이었는데 아래 한 귀퉁이에 작은 확대경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거울로 얼굴을 들여



다 보았더니 내 얼굴의 주름이 아리조나주 그랜드 캐년의 계곡만큼이나 깊어 파져 있었읍니다. 내 수염은 계곡의 큰 나무 같아 보였읍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이나 내가 우리의 신권을 행사하기를 기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권은 감추어 두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신권은 더 크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며 유용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권을 성약으로 받아들였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이 성약을 받아들인 뒤에 이를 깨뜨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리라.”(교성 84 : 41) 약간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동안의 부주의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아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침, 저녁,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정의 밤을 주셨고 가정의 밤을 통해서 자주 우리의 임무를 상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권회를 주셔서 형제들

이 서로 모여 신권의 임무를 새로이 상기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너무 책임이 많아서 저는 신권을 소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길은 오직 한 길이니, 곧 끝까지 따르고 이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약을 받들지 아니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권에 이르지 못한 모든 자에게 화있을지어다. 이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너희에게 하늘에서 의치는 나의 음성으로써 이 신권을 확인하거니와”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군의 나의 천사들에게 너희를 맡기노라”(교성 84 : 42) 여러분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지켜 보고 있는 하늘의 천사를 직접 보시지는 못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는 여러분의 일거 일동을 관찰하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머리에 스치는 생각까지도 읽고 있습니다. 신권을 소유한다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그런 것 성경

에 없는데’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말일에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셨던 이 말씀을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시대의 교회 대관장이셨던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오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벤허 2 : 20, 22)

우리는 한 명도 개나 돼지의 길을 따라서는 안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한없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내와 자녀를 인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높은 특권을 성스럽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도와 행동이 일치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1975년 8월 17일 일요일 아침 모임 말씀

교회 역원 지지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

호 명받으시는 총관리 역원과 교회 역원은 거수 지지가 끝날 때까지 제자리에 일어나 서 계시 주시기 바랍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블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하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로서 베이단 엘돈 태너 형제를 대관장단의 제 1보좌로, 매리온 지 롬니 형제를 대관장단의 제 2보좌로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몽키, 엘 톰 페리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사를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교회 축복사로 엘드레드 지 스미스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장단의 두 보좌와 십이사도와 교회 축복사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으로 에스 덜워스 영, 에이 데오도르 터틀, 폴 에이치 던, 하트만 렉터 2세, 로렌 시 던, 렉스 디 피베가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로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이사도 보조로 엘마 소니, 엘레이 엘 크리스찬슨, 스티얼링 더블류실, 헨리 더 테일러, 앨빈 알 다이어, 프랭크린 디 리차즈, 데오도르 엠 버튼, 버나드 피 브룩뱅크, 제임스 에이 컬리모어, 매리온 디 행스, 조셉 언더슨, 데이비드 비 헤이트, 윌리엄 에이치 베넷, 존 에이치 반덴버그, 로버트 엘 십슨, 오 레스터 스톤, 제임스 이 파우스트,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닐 에이 맥스웰, 윌리엄 그랜트 벵카터, 로버트 디 헤일즈, 애드니 와이 고마즈, 조셉 비 위슬린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재단 이사장에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을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감독단의 관리 감독으로 빅터 엘 브라운, 제1보좌로 에이치 버크 피터슨, 제2보좌로 본 에이치 페더스톤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이사도 지역 대표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지역 대표 전원.

멜기세덱 신권과 관리 책임자로 데이비드 비 헤이트, 부책임자로 제임스 에이 컬리모어와 매리온 디 행크스 형제.

멜기세덱 신권 상의회 관리 책임자로 매리온 디 행크스 형제와 그밖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본부 임원 전원을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감독단 빅터 엘 브라운, 에이치 버크 피터슨, 본 제이 페더스톤 형제의 관리를 받는 아론 신권의 책임자로 톨란 지 크레이븐 형제와 그밖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 전원.

청년 회장으로 루드 에이치 펑크

자매, 제1보좌로 호렌스 에이치 차일드, 제2보좌로 아디스 지 케프 자매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 전원.

초등협회 회장에 나오미 엠 샴웨이 제1보좌에 세이라 메리사 비 폴슨, 제2보좌에 콜린 비 레먼 자매와 그밖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본부 임원 전원.

교회 교육 위원회 위원으로 스펜서 더블류 김블, 네이단 엘돈 태너, 매리온 지 톰니, 에스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헹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퍼커, 브루스 알 맥콩키, 매리온 디 행스, 폴 에이치 던, 빅터 엘 브라운 형제와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이상의 모든 형제 자매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블 대관장님, 교회 역원과 총관리 직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지지받았습니다.



회개

매리은 지 롬니

주님께서서는 “...이 교회의 장로는... 성경과 물몬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칙을 가르치라...”(교성 42 : 12)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의 말씀대로 나는 성경과 물몬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인 회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세상 사람에게 회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이 원리를 모든 사람이 적용할 때만이 오늘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복음의 둘째 원리인 회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가 따르는 참된 회개는 용서를 낳게 됩니다. 그러한 회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물몬경에 분명하고 아름답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엘마는 천사의 지시에 따라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이제로부터 오래지 않아 하나님 아들이...”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회개의 침례를 받을 자들을 구속하시려 오시나니.”(엘마서 9 : 25-27)

여러분께서는 엘마가 예수는 모든 사람을 구속하려 오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엘마의 선교 동반자였던 엠올레크도 같은 내용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범법을 대



신하시며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에게 강림하실 것을 아노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라.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내려 주시리니, 이 마지막 회생은 곧 공의를 다스리시며, 사람이 능히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을 갖도록 자비를 내려 주시려는 데 뜻이 있느니라.”

“자비는 공의를 따르며 저들을 안전히 보호할지나, 회개에 이르도록 신앙을 쌓지 않은 자들을 공의의 법이 심판할지니, 신앙을 갖고 회개한 자에게만 크고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내려지”게 됩니다. (엘마서 34 : 8, 15-16)

물몬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임이라...이는 마치 구속이 마련되지 아니함과 같음이라”(모로나이 7 : 38)

예수께서는 니파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문제를 요약해 주셨습니다.

“정결치 아니한 것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라. 신앙을 갖

고 죄를 회개하며 끝까지 충실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한 자가 아니면 결코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라.”(니파이삼서 27 : 19)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이는 계명이라. 회개하라, 너의 온 땅에 거하는 자들아 회개하여 내 앞에 이르라...”(니파이삼서 27 : 20)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예수를 믿는 신앙과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부활의 권세를 통하여 영생으로 세우심을 받으리라”는 소망”(모로 7 : 41)에 근거를 둔 회개입니다. 개별적인 문제이건 모든 인간의 문제건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원리입니다.

주님께서서는 현대의 그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를 명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여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와 나의 분노와 나의 노여움으로 너희를 치지 않게 하고 너희 고난이 극심하지 않게 하라.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너희는 알지 못하며 얼마나 격렬한지 알지 못하나니, 참으로 그러하다. 너희는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하는도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한 것 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

“그 고난은 하나님이요,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명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피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고까지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버지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그 쓴 잔을 마셨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쳤느니라.”(교리와 성약 19 : 15-19)

즉 주님께서는 공의의 요구를 믿는 신앙과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또 다시 너희에게 회개를 명하노니, 내가 나의 전능한 힘으로 너희를 낮추게 하지 않도록 하라. 너희 죄를 고백하라. 그리하여 내가 말한 형벌을 ... 겪지 않게 할지니...”(교리와 성약 19 : 20)

인간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복음을 참된 인생의 방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못하되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느니라.”(교성 59 : 21)

주님은 이 세대의 문제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교성 1 : 16)

태너 부대관장님으로부터 들은 선교사와 한 목사와의 대화를 여러분께 말씀드림으로써 이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의 말을 마쳤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모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네 목사님은 목사님의 방법대로, 저는 주님의 방법대로 노력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이 세대의 문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본질은 하나의 우상이며 남

은 것이니 바빌론 곧 멸망할 대 바빌론 처럼 파멸하리라.”(교성 1 : 16)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 : 43)

“죄를 버린다”는 말은 분명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이 죄를 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죄를 고백한다는 사실과 이에 관한 수 많은 거짓 교리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 문제에 관한 몇 분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자신과 하나님에게만 관계되는 개인적인 범법에 대해서는 [자신과 주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족합니다.”(대회 보고 1955년 10월, 125페이지)

사실 아무에게나 죄를 고백해서 이로울 것은 없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계가 없는 과오는 자신만 알고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약점은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감추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8페이지)

“타인에게 해를 미친 과오를 범했을 때는 화를 당한 사람에게 고백하여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회원 자격이 위태로울 정도의 잘못을 범했을 경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범법자는 그의 감독이나 교회의 관리 직원에게 완전히 고백을 해야 하는데, 이는 교회의 역원이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과 주님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합당한 방법으로 역원을 통해서 기능을 발휘하는 교회가 사실을 분명히 알아 사정에 맞게 이 권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권능은 주님과 주님이 구체

적으로 위임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합당한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피해자, 혹은 필요한 경우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그의 행동을 깨끗이 정리한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용서를 간구할 수 있고 그리스도에 힘입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회 보고, 1955년 10월, 125페이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58 : 42)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를 통해 용서를 얻은 사람이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되는지 물론문을 통해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이노스서를 인용합니다.

“...나는 또한 내가 나의 죄 사함을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간구한 일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려 하노니,

“보라 내가 숲으로 짐승 사냥을 갔을 때, 나의 부친께서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하여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깊이 스며들음을 느꼈고,

“내가 영으로 굶주림을 느껴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울부짖어 구하며 내 영육을 위해 심령을 다하여 간구하였고, 밤이 되도록 소리를 높여 하늘에까지 소리가 들리도록 부르짖었더니,

“한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시기를, 이노스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네가 복되리라 하시니라.

“이에 나 이노스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지라 나의 죄가 씻겨졌음을 알아,

“주여, 어찌 이 일을 이루시나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네가 전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오래지 않아 육신으로 친히 나타나 보이시리라. 그러니 이제 가라 너의 신앙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동포 나 파이인들의 변영을 비는 마음이 솟아



나, 하나님께 나의 온 심령을 기울여 저들을 위해 간구하였다.”

(이노스서 2-9)

다음 인용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이웃의 복리를 위하여 사랑과 관심을 보일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기쁨으로 차게 되며, 그에게는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베냐민 왕이 간곡한 이별의 말을 마치고 나서 한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무리를 둘러 보니, 보라 저들은 주님이 저들에게 임하실까 두려워하여 모두 땅에 엎드러졌으며,

“저들은 스스로가 육육의 상태에 있으며 땅의 티끌만도 못한 존재임을 느껴 모두 한 소리로 크게 외쳐 이르기를, 오 긍휼히 여기시며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험을 미치사 우리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청결히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장차 인간에게 오실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오니 이다.

“저들이 이렇게 부르짖으매 주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신지라, 저들이 기쁨으로 찬탄해지며 죄 사함을 받으며 양심에 평안을 얻으니, 이는 베냐민 왕이 저들에게 이른 대로 저들이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은

신앙으로 인함이라.”

(모사이야서 4 : 1-3)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오는 이러한 양심의 기쁨과 평안은 얼마가 그의 아들 힐라만의 개종에 관해서 한 다음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모사이야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나아갔으나, 보라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천사를 보내사 바로 우리를 멈추게 하시었나니,

“보라, 천사가 천둥소리 같은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매 우리가 딛은 땅덩이가 흔들렸고, 우리에게 물려온 하나님께 대한 공포로 인하여 우리는 땅에 엎드러졌었느니라.

“그러나 음성이 내게 이르시기를 일어나라 하신고로 내가 일어나 우뚝 서서 천사를 보았느니라.

“그리하여 천사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신이 멸망되기는 바랄망정 다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 하지 말지라 하셨으니,

“이에 내가 땅에 넘어져 사흘 낮 사흘 밤 동안 입도 열지 못하고·사지를 움직이지도 못하였느니라.

“천사는 내게 더 말씀하셨으나, 내 형제들이 들었을 뿐 나는 듣지 못하였으니, 네 자신이 멸망되기는 바랄망정 다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정말 멸망되지나 않을까하는 공포와 놀라움으로 땅에 엎드린 채 더 듣지 못하였느니라.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로 인하여 심한 괴로움과 고통이 나를 사로잡으며 영원한 고통에 쌓여 있었느니라.

“참으로 나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한 나의 모든 죄와 간악함을 기억하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의 성스러운 계명을 지키지 않았음을 깨달았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살해하였고, 저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밀어 넣었으며, 나의 죄스러움이 말할 수 없이 컸으므로 하나님 앞에 이끌려 나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나의 영혼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사로잡힌 바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나의 영과 육체가 한꺼번에 없어져 주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했느니라.

“그러나 사흘 낮 사흘 밤 동안을 저주받은 영으로의 온갖 고난을 다 당하였느니라.

“내가 이처럼 지은 죄를 기억하며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러 세상에 내려 오시리라고 나의 부친이 사람들에게 예언한 말씀을 들었던 일을 기억하였느니라.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내가 마음 가운데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쓰디쓴 고통에 빠져 있고, 영원한 죽음의 사슬에 묶여있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였더니,

“보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였을 때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음을 기억하노니, 진실로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되었으며,

“놀라운 기쁨과 빛을 보았나니, 내 영혼은 전에 고통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이번에 기쁨으로 가득차게 되었느니라.

“나의 아들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의 고통보다 더 쓰며 괴로운 고통은 없었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 말하노니, 나의 아들이 그 후에 느낀 나의 기쁨보다 더 감미롭고 아름다운 기쁨도 없으리라.” (엘마서 36 : 6-21)

이 모든 증거의 말씀에 나는 나의 간증을 더하여 회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용서는 물론 “평안”과 “휴식”을 아울러 누릴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 : 28-30)

우리 모두 회개하고 끝까지 견디어 편안한 안식을 얻게 되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말일을 준비하는 말일성도

서울 스테이크 부장 이 호남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본 대회에 참석하신 방문자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이신 김볼 대관장님과 그의 많은 종관리 역원을 모시고 이 역사적인 한국 대회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간증을 더욱 강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대로 인간인 우리가 배척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 그의 대변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분을 보십시오. 이 분이 살아계신 말일의 예언자요, 사도이시며 하나님의 대변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이십니다.

저는 먼저 이 분이 왜 이곳 한국에 오셨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전을 통해 오래전부터 말일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말일을 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일을 잘 준비하도록 그의 대변자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이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요셉 스미스의 때가 찬 복음 경륜의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부천년의 성스러운 안식을 맞기 위한 토요일 저녁입니다.

말일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 다음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반성과 회개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버린 교회로 주님께 책망을 들었으며,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로, 두아디라 교회는 음란한 행위로, 사데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힐책을 당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덤지도 않아서 토하여 내겠다고 경고를 받았읍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으로부터 이단이라고 비웃는 환관과 궁핍을 이겨낸 부유한 교회로써,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힘을 가졌으나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인내로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칭찬을 받았읍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차지도 덤지도 않으며 사랑이 부족해서 힐책받은 그러한 와드나 지부에 속해 있는가를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회개하며 힘써 말일을 준비할 때 이들 교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며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아울러 생명의 면류관과 새 예루살렘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보좌에 앉히겠다는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을 때는 현 지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죽 교회로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하셨으며, 심판때 큰 환난에 던져버리겠다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 남의 것, 작은 것을 위해 일하는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자기 것, 큰 것에 소망을 둔 빛의 자녀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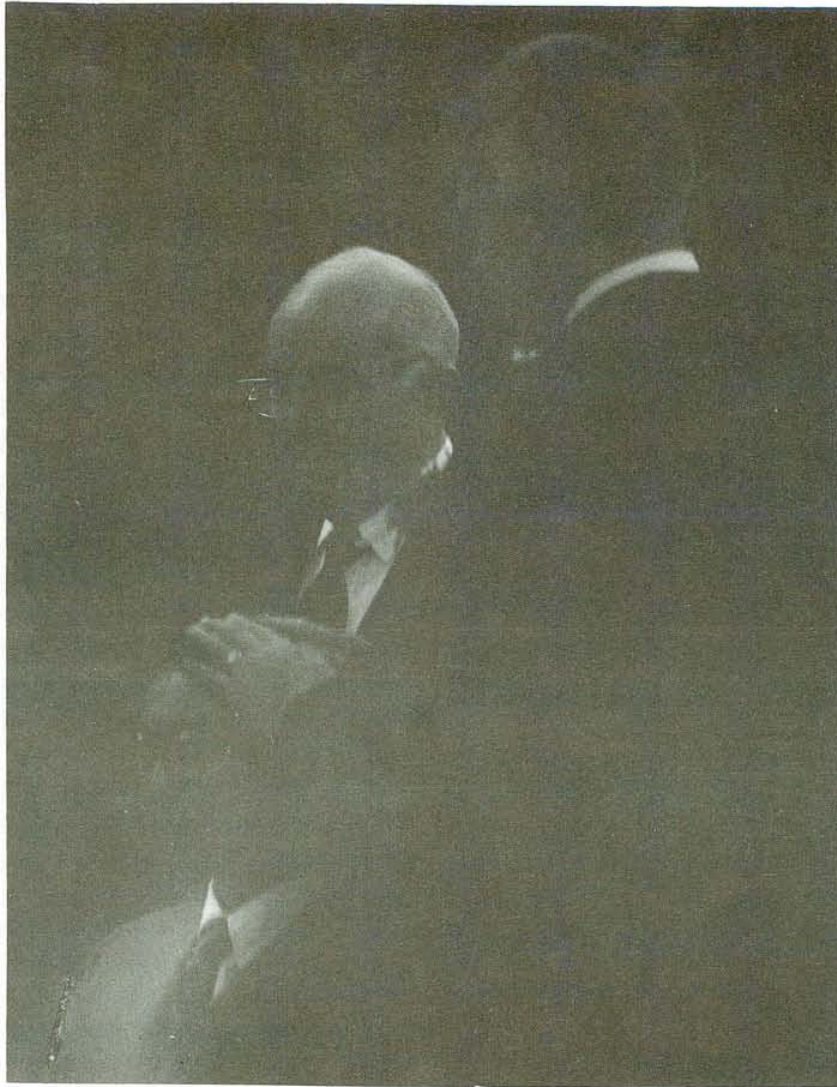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자녀들은 그들의 적은 것을 위해서도 갖은 지혜와 노력으로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빛의 자녀들은 큰 소망과 높은 이상을 갖고 있으나 그 소망과 이상에 따르는 신앙과 행위가 없다면 무의미함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빛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상고하여 이를 지키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언자의 말씀과 지시대로 매일의 생활에 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가정에 충실치 못하며 부모와 자녀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반성해서 지금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으려는 의식하는 자, 위선자가 되지 말고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좇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사들이 서로 다투고 그들이 인간의 것을 가르치며, 성령을 부인하며 오늘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



나니 구속주가 인간에게 그의 권세를 다 위임하셨다고 주장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언자 니파이가 말한 바와 같이 악마가 인간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일으키며 선한 것에 대하여 성을 내도록



책동하는 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말일의 사탄은 조심스럽게 우리의 영혼을 속여 지옥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달콤한 말로 지옥이 없으며 악마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일의 경전을 인용하여 강렬히 경고합니다.

“이와 같은 유혹에 빠진 자는 사망과 지옥에 붙잡힌 것입니다. 사망과 지옥과 악마에게 붙잡힌 자는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며 저들을 위하여 마련된 처소 곧 끝이 없는 고통의 처소인 불과 유황 못으로 가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말일에 사는 현대의 우리는 주님의 초대장과 사탄의 초대장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초대된 장소로 떠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서둘러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여행은 먼 여행,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여정입니다. 저는 사탄의 초대장을 스스로 불태워 버리고, 그 길이 좁고 험준하지만 영생을 주는 길로 걸자고 호소합니다. 주께서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우리에게 명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의 힘이 커서 우리가 말일의 준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주를 맞이하려는 신념과 사명감만 갖는다면 주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말일성도가 말일을 준비하므로 우리의 가정이 지상의 천국이 되고 사회와 국가에 평강이 깃들 것입니다. 말일성도가 말일을 준비하므로 말일성도가 가는 곳과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함께 하여, 정직, 순결, 인자, 선행, 근면으로 교회와 이웃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간증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언자

폴 시 앤드러스 장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언자가 계시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이 훌륭한 대회에서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라고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적인 경험입니까. 그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은 참으로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대변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국민에게 그분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말해 주고 있는 성령을 느낄 수 없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간증은 제 가슴속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불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기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늘 그의 택하신 살아있는 예언자를 통하여 인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아주 명백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7)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첫번째 인간이요, 첫번째 예언자였던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기를 거듭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의 여러 예언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말을 거역하고 예언자를 죽이는 사악한 행동으로 인해 인간은 오랜 동안 선택된 살아있는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대의 여러 선지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일례로 약 2,800

년전 아모스는 이같이 외쳤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찌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와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암 8:11-12)

이제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은 끝났으며, 하나님은 다시 그의 살아계신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서운 기근은 약 155년전 요셉 스미스라는 어린 소년이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인가를 알려고 열심히 간구했을 때 극적으로 끝났습니다. 요셉은 야고보서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는 구절을 읽고는 정말 참된 교회를 찾자 한다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아버지의 농장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 숲에 들어 가서 무릎을 꿇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요셉 스미스의 신앙은 고금을 통하여 가장 위대한 시현으로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요셉에게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 당시 지상에는 참다운 교회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 하늘의 사자들이 그를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필요한 권능을 부여하여 요셉 스미스는 말일의 첫번째 예언자가 되었으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지상에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의 회복에 관한 이 위대한 사건을 약 2,600년 예언자 다니엘의 입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단 2:28, 44)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일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그의 왕국을 세우셨으며 이 왕국은 전 세계의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왕국은 세상에서 흔히 몰몬 교회라고 부르고 있으나 몰몬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이며, 이 교회의 정식 명칭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과 만물의 창조주이요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한국에도 세워졌습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온 교회 회원은 제이차 세계 대전이 종식된

후 파견된 미군 형제들이었습니다. 더 많은 회원이 한국 전쟁시에 들어 왔습니다. 이들은 한국인을 친구로 사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으며, 몇 명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김 호직 형제는 1951년 미국 유학 시절에 개종하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1954년에는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이, 1955년에는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셨던 스미스 장로님은 장충 체육관이 있는 바로 이 언덕에서 한국 땅을 복음 전도지로 헌납하고 김 호직 형제를 한국 지방부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도착한 때는 1956년 4월이었으며 한국에 독립 선교부가 조직된 때는 1962년 7월이었습니 다. 1973년 3월 18일, 스펜서 더블류 킴 대관장님께서 서울 스테이크를 조직하셨으며, 금년에 부산 선교부가 조직되었습니다. 전세계의 교회 회원은 약 3백 5십만이며, 그중 8천 5백명이 한국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아직 적지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온 지상을 채우리라는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언자로서 킴 대관장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결음의 폭을 넓히고, 특히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온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제십니다. 1975년 4월 3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대관장님은 효율적인 선교 사업을 이룩하는 데에는 두 가지 열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가족 대 가족의 우정 증진(회원 가족이 비회원 가족과 복음을 나누는 방법)이며, 둘째 회원과 선교사가 함께 구도자를 찾는 방법입니다. 한국의 약 3천 5백만 명이 아직도 하늘의 문이 열렸으며 참된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회원 가족이 비회원 가족과 우정을 증진시켜 그들을 회원의 가정에서 선교사와 만나게 해 준다면 한국 성도의 수는 급속도로 수만, 수십만, 수백만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자기의 친척들과 친

지들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일례로, 최 동현 형제님은 아들 최 경환 형제의 인도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는 18개월 동안 어머니와 형제 자매, 친구 등 30여명의 새로운 회원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최 형제님과 그 가족으로 인하여 개종하신 분들은 모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분들이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교회를 알고 이 교회에 속함으로써 저분들이 얻게 된 생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최 형제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고로 너희는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도록 부름을 받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본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만일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의 내게로 데려 온 단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것처럼 클진대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 오게 될 때면 너희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교성 18 : 14-16) 하나님께서는 그의 살아계신 예언자를 통하여 그에게로 많은 영혼을 데리고 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제십니다. 예언자

니파이를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시니라”(니일 3 : 7) 또한 예언자 암몬을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신앙으로 생활하며 선행하고 쉬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께서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시나니, 이러한 자에게만 지금까지 계시되지 않은 것을 계시해 주시며, 이러한 자에게만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형제들을 회개시킬 수 있게 해 주신 것 같이 수 천 영혼을 회개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앨 26 : 22)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대회장을 나가실 때 새로운 결의와 열의와 사랑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친척과 친구와 그들의 가족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교사와 만날 수 있게 해 주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수백만 명이 교회에 입교하여, 모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의 구속주요 구세주이시며 이 지상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천국가족의 일원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여기에 모였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살던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천국에서 한 가족으로 함께 살았으며,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또한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병든 자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를 차별치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곳에 사는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행복하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그의 교회와 예언자란 이 지상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옳은 일만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큰 투쟁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 싸움은 구세주의 군대인 신권 소유자와 사탄의 무리간에 벌어지는 현실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은 강력한 지도자로 교활하고 음흉하며 전쟁에 능합니다. 사탄은 그의 강한 힘을 불의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전투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거나 입고 있습니다.

사탄은 간교한 술책으로 영적으로 약한 자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생각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사탄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능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사탄은 악을 온갖 아름다운 종이와 리본으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꾸러미를 끌려서 내용물을 보고서야 그것이 나쁜 것임을 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합당하게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사탄의 가르침인지 구별하기가 극히 어려우며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와 불의, 선과 악, 구세주의 가르침과 사탄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 이 생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한 목적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과정이 이 생애에서 성공과 행복을 얻는 비결이 됩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훈련하며 강화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잡하지 않으며 신비롭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하고 아름다우며 생명을 구하는 진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영을 가르치고 훈련할 이상적인 훈련장 다시 말하면 이상적인 학교를 주셨으니, 이것은 물론 가정입니다. 가정은 진리와 의의 기본요소를 가르쳐야 하는 곳입니다.

가정은 자녀들이 타인에 대한 믿음, 존경을 배우는 곳이며, 간증을 키우는 곳입니다. 이와 같은 영원한 행복의 기본 요소는 말라 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보살피지 않으면 영양과 물을 받지 못한 나무처럼 시들어 죽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

랍니다.

이 가정이라는 조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정은 왕국의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단위인 가정의 머리가 되는 가장이 관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로 정하신 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아버지에게 신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후에 경고도 주셨습니다. 경전의 여러 부분에서 주님은 신권에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신권을 오용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영예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나 교만을 채우며 신분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121편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택함을 받지 못한은 무슨 연고뇨?”

“이는 저희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얽매어 있고 또 인간의 영예를 갈구함이며 이 한 가지 교훈을 배우지 아니하였음이니

“곧 신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뗄 수 없나니,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

형제 여러분, 우리는 불의하게 권능을 행사해서도 안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신권의 힘은 의로운 생활에서 나옵니다.

신권의 주요 목적은 가장으로 하여금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를 축복하게 하는 영원한 목적이라는 매우 간결한 원리는 이해해야겠습니다. 해의 왕국에서의 승영은 남편과 아내를 위한 것입니다. 남편 한 사람만이 또는 아

내 한 사람만이 승영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어머니인 아내를 사랑하고 아꼈 때 신권의 가치가 강화되고 훌륭하게 활용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 여러분, 아내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영원한 동반자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 없이는 승영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딸인 여러분의 아내에게 모든 면에 있어서 인내와 사랑과 이해를 아끼지 마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목적으로 우리에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아내는 우리의 종이 아니며 우리가 아내보다 더 중요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축복사입니다. 훌륭한 아버지는 자녀에게 의로운 모범을 보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들 딸의 행동이 모두 정직하고 친절하며 인내심이 있으며 청렴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훌륭한 축복사인 아버지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단정하고 깨끗한 복장을 하고, 예의 바르고 깨끗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예의와 존중하는 자세로 대하는 것을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남성다운 축복사는 온화한 성품을 잃지 않는 강한 사람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강하셨습니다. 그는 결코 난폭하거나 불친절한 행동을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킴볼 대관장님에게서 이같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대관장님은 온화하시나 분명하게 친절한 조언과 분명한 모범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참된 축복사는 가정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의로운 아버지는 생업에 종사하고, 교회에서의 말은 바 임무도 수행해야 하지만, 가족과 함께 지내

고 일하고 즐기는 일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권은 가정을 감독, 지부장, 또는 그밖의 지도자의 직책을 맡게 하는 권능이지만 이 모든 직책은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책임에 비하면 이차적인 것입니다. 부모가 이 원리를 배워 알 때 우리는 악의 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한 영향력은 사랑하는 아내의 내조를 받아 진리와 의의 길로 자녀를 인도하는 의로운 신권 소유자에게서 나오는 힘입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몇 가지 일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원리는 현재에서와 앞으로 올 영원한 세계에서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비결입니다.

첫째,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이 매일 교통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사람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녀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생애를 그대로 위험 속에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다. 매일 갖는 기도는 그날의 가장 즐겁고 귀한 체험이 될 것입니다. 집에서 어린 자녀들이 차례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가슴벅찬 희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누는 단순하면서도 경건한 대화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구세주와 그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경전에서 구세주의 가르침을 읽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구세주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자녀라면 구세주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가족은 예의없이 매일 집에서 몇 분 동안 경전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집에서 아내와 다섯 딸과 함께 둘러 앉아 15분간 경전을 읽어 왔는데 이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가정에 따라서 이 시간을 아침에 가질 수도 있고 저녁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고귀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정에는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힘과 목적, 그리고 가정의 단합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살아 가는 동안 걱정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관계없이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받는 것은 크나큰 경험이 됩니다. 비와 바람과 폭풍은 반석위에 지은 집 위어나 모래 위에 지은 집 위어나 똑같이 내려 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비와 바람과 폭풍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과 가정을 반석위에 세우기 위해 매일 온갖 노력을 쏟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준비된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일 사탄의 접근과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강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용 기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본인은 과거 20년 동안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거행되는 6월 대회에서 무용 웨스티발과 합창을 지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책임을 맡아 왔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문화의 밤에서 여러분이 보여 주신 것처럼 훌륭한 기술과 열의와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총관리 역원을 대표하여 그분들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모든 지도자와 책임자와 참여자에게 전해 드립니다. 본인은 가장 기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토록 훌륭한 재능을 나누어 주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용기 있는 생활의 위대성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용기는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용기는 적극적인 행위를 낳아 줍니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 낫을 드는 일, 허리를 동이는 일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참된 용기는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고 걷게 합니다.

나는 이제 용기있는 행동의 네 가지 면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1. 말일성도가 되는 용기 나는 교회 초기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안면이 있는 몇 사람이 당시 상황이 지극히 위험스럽게 되자 그에게 “요셉, 포기하십시오.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가 보인 비상한 용기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참되다고 믿는 것을 부인하기 보

다는 차라리 죽겠다고 외치며 꺾꽂게 서 있는 그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경우도 그와 꼭 같았습니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으며 그 빛 가운데 두 분이 계신 것을 보았고 그 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하여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 그대로이며 내가 이런 말을 하여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나에게 대하여 모든 거짓으로 말할 때 나는 마음속에 왜 저들은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나를 핍박할까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시현을 보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으며 왜 세상이 나로 하여금 내가 참으로 본 것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일까? 나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며 징계 받는 일인 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요셉 스미스 2서 : 25)

예언자께서 보여 주신 용기를 생각

해 볼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또 최근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본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는 18년 전만 해도 비회원으로서, 교회가 그에게 미친 최초의 영향력은 당시 사귀고 있던 말일성도 소녀가 전해 준 것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친절하나 분명한 태도로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신전 결혼을 해야 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는 신전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알게 된 이 여인이 지닌 용기 덕분에 신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지금은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2. 특별한 사람이 되는 용기 우리는 대중의 움직임에 좇아 생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일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말일성도는 의로운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목표와 행위는 숭고하고 영원해야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 : 9)

올바른 원리는 우리가 오늘날의 사회에서 우리 자신을 합당히 다스릴 수 있게 해 줍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나사렛 예수께서는 그의 목숨이 풍전 등화가 되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용기 있는 투쟁의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 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마태복음 27 : 11-14)

현대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은 어딘가가 남과는 다릅니다. 순결은 결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젊은이 여러분은 유덕함과 순결함을 지니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해야 합니다.

술, 마약, 담배, 뜨거운 음료, 무례함, 누추한 차림새, 불건전한 음악, 잡지, 영화를 멀리하십시오. 사악한 행위는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의로운 행동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이 날은 여호와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시편 118 : 24) “정말로 형제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빌립보서 4 : 8)

3. 굳게 서는 용기 사탄이 간교하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십시오. 세상의 사악한 방법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의의 편에 굳게 서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이 생환보다는 의를 좇는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또 다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의 종 하이람 스미스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의 마음이 고결하며 내 앞에서 올바른 것을 사랑하므로 저를 사랑하는 연고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교리와 성약 124:15) 주님께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예언자의 곁에 굳게 서라고 훈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라. 내 종 요셉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 놓일지라도 성실하게 그의 편이 되라. 저의 잘못을 타이르며 또한 저로부터 훈계를 받을지어다. 인내하며 근신하며 절제하라.

인내와 신앙과 희망과 자비를 품으라”(교리와 성약 6 : 18, 19)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굳게 서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암몬이 말을 마치자 그의 형제 아론이 경계하여 이르기를 암몬이여 너의 기쁨이 교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노라 하니 암몬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힘이나 지혜를 자랑함이 아니라. 보라 나의 기쁨이 차고 넘치나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려 함이라. 내가 아무 것도 아님을 아노라. 나는 힘이 약하여 나를 자랑할 수 없으나 주의 힘으로 만사를 다 할 수 있으며, 나의 주를 자랑하리라, 보라 우리가 이 땅에 큰 기적들을 행하였으니 이로써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로다.”(앨마서 26 : 10-12)

4. 지속하는 용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요한복음 8 : 31-34)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이를 세상에 나가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성실히 간직해야 합니다. 복음의 축복과 특권, 그리고 복음의 힘을 받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감하게 계속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결실을 맺도록 세상에 봉화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난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

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면 나의 아버지께로 잠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요한복음 14 : 21-28)

주님께서 끝까지 충실한 자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빕니다.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교리와 성약 93 : 1)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한복음 15 : 13, 14)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그분께서 우리가 합당한 말일성도가 될 용기를, 세상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 될 용기를, 굳게 설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계속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지니고자 하는 의욕과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교회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참되다는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우리의 은인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이 안식일 오후 모임에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을 대하니 마음이 겸손해지며 이와 같이 훌륭한 대회를 갖게 해주는 복음을 감사히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주님께 의지하여 힘과 영감을 받을 수 있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한국인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유를 아끼고 사랑하며 자유를 위해 불굴의 투지로 투쟁해 온 것을 감사히 여기며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자유 경쟁 기업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지닌 백성들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30년간 장족의 발전을 해 왔으며 이 점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1945년 이래로 이 땅에 이룩된 눈부신 발전에 감사와 기대를 가지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계속하여 다시 남북통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와 충실한 시민을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문화 유산을 많이 물려 받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의 문화의 밤 행사는 훌륭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전통 속에는 근면과 참고 견디는 일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나는 한국에서 말일성도 군복으로 복무한 바 있는 스펜서 제이 팔머 형제로부터 한국에서 최초로 교회 회원이 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김 도필 자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자매님은 한국에 교회

를 세우던 초기에 김 호직 박사처럼 헌신한 자매였습니다. 그녀가 자매들에게 베푼 봉사와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확고부동한 뜻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 자매의 이야기는 신앙과 봉사, 그리고 위대한 인내심의 본보기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한 그녀의 결심과 충실한 태도는 한국에 있는 말일성도 자매들의 귀감이 되며 그녀는 전세계의 교회 자매들을 위해 빛을 발하는 등불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전에 방문했던 때의 일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먼저 1950년대 초에 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내각의 농림장관으로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때 우리 대표단은 한국 정부 및 농림부 관리들과 회담을 갖고 무역에 대한 양국간의 관심사에 관해 토의했습니다. 1968년 11월 16일에는 순회 방문 계획에 따라 교회 역원으로 한국을 6일 동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벤슨 자매와 함께 그때의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나는 서울에서 가진 중앙 지방부의 대회와 신권 역원회 그리고 상호부조

회 모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회에 375명이 참석했으며 이차 총회에는 400명이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참석수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150명이 참석한 군인 지방부 대회도 기억합니다. 선교부를 돌아본 여행은 시종 즐거웠습니다. 나는 서울의 많은 지부와 여러 곳에 있는 시설을 둘러 보고 교회 확장에 따른 새 물결의 필요성을 알아 본 일도 기억합니다.

나는 한국의 중부 지방 방문과 선교사 대회, 그리고 교회 건물 부지 방문도 기억하며 특히 새 건물을 지을 영등포의 교회 부지를 방문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낙번동에 있는 선교사 숙소에서 장로들과 함께 점심을 먹던 일이며, 광주와 기타 여러 지역에서 선교사와 함께 가진 모임이 생각납니다. 그때에 겪은 새로운 경험의 하나는 청주에 있는 성도와 구도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진 뒤에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낸 일입니다. 청주 지부에는 기록상의 회원이 80명 뿐이었는데도 그곳에서 가진 모임에 175명이나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한식 여관의 온돌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내게는 새로운 경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침대가 딸린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일지에는 “온돌방이 참 좋았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전기 면도기로 면도를 하고 있는데 그만 정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전기가 곧 들어 왔습니다.

나는 선교사들과 가진 영적인 모임과 부산 방문도 기억합니다. 부산에서 우리는 신권 소유자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벤슨 자매는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모임을 가졌으며 그후 우리는 예배당에서 대회를 가졌습니다.

오래 된 건물에는 200명의 회원과 구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의 일지에는 꽃과 현수막 그리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에 대한 참된 사랑을 느꼈으며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지닌 여러분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며,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할 때 내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종교의 핵심이 되시며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로부터 받은 선물, 그리고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는 우리에게 인생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완전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지상 생활을 위해 완전한 모범을 보여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대속과 부활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얻게 하려고 육체의 고통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교성 19:15-19)

어떤 사람들은 순교는 하겠다면서 신앙에 따라 생활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의 대속을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인 영생,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리시는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고 물으시고는 자기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대

답하셨습니다. (니삼 27:27 참조)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범에 가장 가까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자요 기쁨에 찬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부나 권세 또는 명예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위대함과 축복, 그리고 기쁨을 얻는 유일한 참된 시험은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을 하느냐에 좌우됩니다. 그는 바른 길ियो, 완전한 진리요, 풍성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 생활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항상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오니까?”(행 9:6)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의 빛과 성신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성신의 영향력의 가득 찬 생활을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신 것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 봉사하느냐 또는 부름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이란 바로 형제애를 지니고 인류를 위해 봉사하면서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첫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을 보여 주셨으며, 둘째로 예언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인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을

똑바로 바라 보고 따라야 합니다. 그분은 “생수의 근원”(렘 2:13)에서 가장 가까운 분입니다. 어떤 계시는 예언자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생활을 하는지의 여부는 지상에서 주님을 대표하시는 예언자의 영감받은 말씀을 어떻게 느끼며 행동하는가를 살펴 보는 것입니다. 대관장의 영감받은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됩니다. 모든 사람은 영감을 받을 수 있으며 개개인 은 저마다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에 필요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세상에서 주님의 대변자는 한 분뿐입니다. 그가 바로 교회 대관장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의 영감받은 말씀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주님의 예언자가 유한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잘못 인도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설교, 윌포드 우드럼, 212-213 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아무나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이 되지 않으며 그 직책에 유입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해임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예언자가 현대에 살아 계십니다. 이분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받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신 계시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각 시대마다 고대의 경전 이외에 살아 계신 예언자로부터 나오는 현대의 경전을 필요로 하고 있음



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읽고 깊이 생각해야 할 경전은 주님의 대변자가 영감을 받아 전하는 가장 최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출판물에 실린 대관장의 말씀을 찾아 주의깊게 읽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도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말일에 예언자를 주시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례,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애와 예언자를 선물로 주신 이외에도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교성 1:30)요 주님의 교회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가 없이는 구원과 승영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침례와 신권, 해의 왕국의 결혼과 인봉의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행하고 펴시는 방편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유대를 갖고 교회 안에서 일해야 하며 교회를 세우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재산을 아낌없이 바쳐야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교회는 계속 발전할 것이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완전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배도로 인해 다시 지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닌 교회 회원 모두를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교성 1:30 참조) 이것은 교회 내의 어떤 회원이 이탈하여 배도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일은 영향력과 권능을 가진 교회 지도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배도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육신의 권세를 섬기지 않는다면 (니이 4:34)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며 인간의 교회 회원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 유행에 따르려 하고 예언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교육과 정치, 음악과 복장에

서 세상의 저것 가르침이나 표준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세속적인 표준은 수시로 바뀌어 결국 많은 고통을 겪게 한 후 다시 높은 율법을 배울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표준이 점점 타락하고 있더라도 의로운 사람들은 최고의 표준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표준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그러면서 반드시 오게 될 복된 날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시간은 모든 일을 해결해 주는 방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선한 사람은 높임을 받고 악인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네 번째 선물은 지금 말씀드린 자유의지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악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모두 선행이나 악행에 대해 즉각적으로 보상이나 형벌을 받는다면 신앙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이나 악행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1962년 10월 대회에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과 격동의 시대에서 자유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짊어진 막중한 책임과 임무는 개인의 자유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에 대한 순종의 필요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인간은 자유와 행복을 찾게 됩니다.” (대회 보고, 1962년 10월, 8페이지)

주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며 악과 대적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바로 여기에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기독교인의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

습니까? 자유를 위한 투쟁은 곧 하나님의 싸움이요 자유의지는 영원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는 창세 전에 있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성공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 성공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영원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율법도 그렇지만 인간이 율법을 깨뜨리면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인간이 자유를 옹호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보호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보호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믿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은 자기 나라에서 책임감이 강한 충실한 시민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언자, 주님의 교회, 자유의지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다섯 번째 선물은 경전의 선물이며 특히 물몬경을 들 수 있습니다.

워싱턴 신전 헌납 기도에서 킴블 대관장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씀한 바와 같이 물몬경이 가장 정확한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물몬경이 우리 종교의 종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다른 어느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하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정사 4권, 461 페이지)라고 말했습니다. 물몬경은 우리 시대를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물몬경을 편집한 물몬은 시현을 통하여 우리를 보았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바를 그 책에 기록했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물몬경을 알고 즐겨 읽는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통찰력과 확신과 영의 분별력의 차이점을 유의하여 관찰했습니다. 물몬경은 나쁜 것을 걸러 내는 체와 같습니다. 물몬경은 여러분의 일상 생활에서 뜻깊고 영감을 주는 도구로 삼으시도록 권고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예언자, 주님의 교회, 물론경, 자유의지는 이 순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 가운데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같은 선물과 축복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주님께 어떤 것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현재 행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그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은 바로 그의 생애와 희생이었습니다. 그것에 비교할 때 현재는 물론 미래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야말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애와 희생은 작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신하게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 오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립된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주님이 내가 자유의지를 어떻게 행사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나는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중립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게 행하십시오. 주님이 저의 지지를 원하시면 저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든 상관하지 않으렵니다. 주님은 저에게서 어떤 것을 빼앗아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모든 것과 저를 전부 주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중요합니다.”(신학 연구원 대회, 1970년 여름)

진실로 하나님께 자기의 생애를 바치는 사람들의 생애를 주님이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더 큰 기쁨을 주시고, 시야를 넓혀 주시며, 마음을 새롭게 해 주고, 육체를 강건케 하시며, 영을 높이 들어 올리고, 축복을 더해 주시며, 기회를 많이 주시고, 영혼을 위로해 주시며 친구를 일으켜 주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

해 자기의 생애를 잃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희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생은 복음이 요구하는 가장 큰 시험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그들의 생활에서 먼저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기 위해 이 지상 생활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마 6:33 참조) 영생을 얻으려면 부름을 받을 때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마 19:21)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좃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마 19:27-29, 교성 132:55)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희생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값진 지식을 얻기 위해 자기의 인격과 덕망, 영예와 칭찬, 명성, 집, 토지, 형제와 자매, 아내와 자녀, 생명까지도 포함해서 사소한 것을 모두 버리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단 순히 믿는 신념 이상의 어떤 것을 지녀야 합니다. 그는 이러한 고통이 지나간 후에 자기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는 것을 실제로 깨닫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신앙을 갖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는 인간이 태초에 존재한 때부터 생명과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신앙은 지상의 모든 것들을 희생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희생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신앙 강화, 58-60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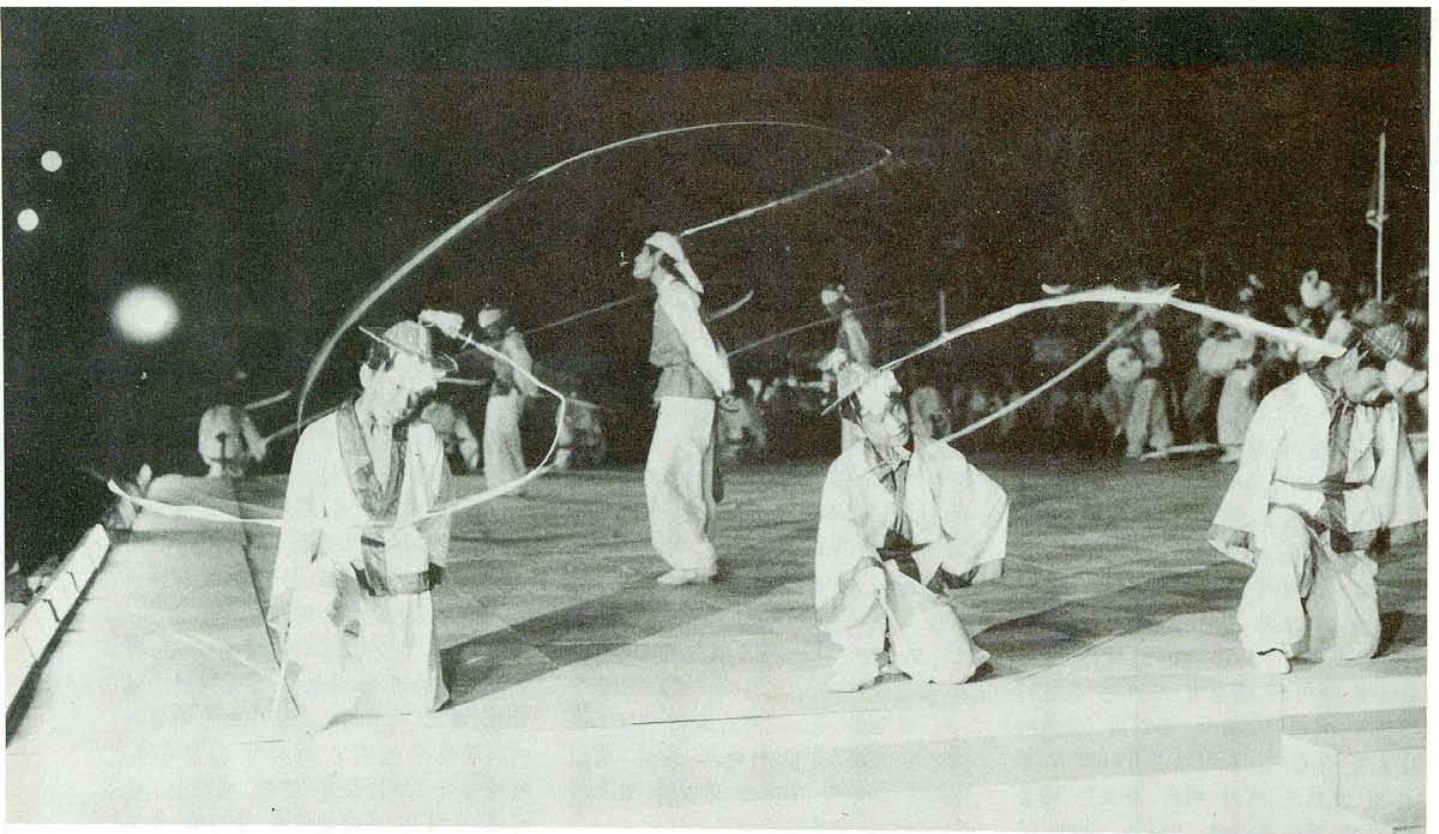
“영원한 견지에서 보면 지상 생활에서 희생이란 전연 없습니다. 희생은 미래의 더 좋은 세상에서 얻을 축복에 대한 약속 때문에 현재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견지에서 볼 때 만일 영생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다면 자기의 생애를 바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데 있어 희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교성 98:13-15 참조 /MC, 664 페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그의 목숨을 버리는 자가 풍요로운 삶을 찾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원하는 대로 시험해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빚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의 뜻을 행할 때에는 언제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은 이와 같은 축복이 더디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풍성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경전의 말씀대로 보수를 생각지 말고 의로운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후에 더 큰 축복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을 겪은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한번도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 기쁩니다. 나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에 관한 한 나는 마음속으로나 회중 앞에서 수십 번이나 그 고통을 낚아서 해어진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과 그에게 다가 와서 아름다운 새 옷을 주는 사람과 비교해 보곤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은 일에 관해 생각할 때 비교해 보는 예입니다. 나는 낡은 옷을 벗어 버리고 새 옷을 있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48페이지)

성도들은 결코 죄인처럼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시험”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축복을 받으니까? 우리 종교의 정신을 받아들여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일에 마음을 두는 자에게는 심한 고난과 슬픔이 따르며 계속됩니다.

“원수의 멍에를 던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의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 11:30 참조) 나는 경험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책, 348 페이지)

여러분은 의로운 어머니가 그들의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여성상이 현모양처라는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이 위대한 한국의 어머니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친 희생의 대상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희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희생을 압니다. 여러분이 겪은 불안과 공포, 고난과 궁핍,

생활고로 연결되는 생애를 압니다. 용기있는 한국 성도들은 여러 면에서 개척기의 물몬 선조들이 당면했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은 용기와 극복하는 힘을 갖고 여러분의 생애를 살아 가기 위해서 영감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용감한 물몬 개척자에게 동기를 부여해 준 생명과 구원의 원리에 따라 기꺼이 생활한다면 여러분은 확신에 찬 성공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용감하고 인내심이 강한 성도들이 서부로 이동하면서 즐겨 부르던 찬송은 여러분이 거칠고 고난에 찬 현실에 직면하여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 할 때 승리의 함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의 2절에 담긴 훌륭한 가사를 음미해 봅시다.

모든 것이 어렵지 않다

나가자 앞으로

우리 어찌 보수 생각하라

나가서 싸우자.

팔을 걷고 용기내자

하나님 보호하리라.

이 일이 곧 옛말 되리

모든 것 잘 되리.

왜 우리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지

않고 그의 길에서 벗어 나는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에게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 드리겠습니다.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의지할 데 없는 어린 남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세상적인 모든 계획을 다 버리고 오랜 세월동안 힘든 노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녀는 병으로 몸져 누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감독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독이 그녀의 거칠고 못이 박힌 손을 쥐었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아실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감독은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께 네 손을 보여 드리려무나”라고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신 분의 특별한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깨끗하며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 표적이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순결하며 그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진실로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매주 성찬을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를 우리의 지도자로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모두 지키겠다는 엄숙한 성약을 맺습니다. 그리할 때 그는 그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래 전에 우리는 우리의 만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지상 생활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만행이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지상에서 악마의 유혹을 이기고 그들에게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직접 보여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상에 있으며 우리의 기억에는 장막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바를 하나님과 자신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각의 장막을 지나 저쪽으로 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 우리에게 얼마나 친밀한 얼굴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그때에야 비로소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켜 보고 계시며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영원한 복지를 위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지금은 기억할 수 없지만 우리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는 하늘의 친구들인 천군이 우리의 성공을 위해 격려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보여 주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일, 매시간, 그리고 순간마다 하나

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과 희생을 보여 주는 때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것을 모두 얻을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16세의 나이로 옥중에서 죽은 유 관순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유 관순은 근면하고 신앙심이 돈독하며 의지가 강한 소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녀는 일본에 조국을 빼앗긴 것에 울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째 요건은 부모와 나라를 사랑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들어가 지리와 역사, 수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종교적인 이상과 영적인 이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애국자가 되어 동포에게 독립 정신을 고취시켜 조국의 백성들이 일본에 항거하여 독립 운동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조국 대한의 자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며 하나님께 조국의 백성들을 축복해 달라고도 간구했습니다. 원수들의 반응은 비참했습니다. 부모는 총살당했으며 자신은 체포되어 심한 매와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재판 결과 투옥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이 모두 감옥인데 옥살이 3년이 문제이겠습니까?” 유 관순은 옥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짧은 생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진리에 충실한 불굴의 투지를 보인 위대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세상의 빛과 생명이 되셨으며, 모범을 보여 주

셨고 우리를 위해 지친을 마련해 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요 11:25, 26)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역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위대한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과 예배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을 것이며 육욕과 물질이 지배하는 암흑과 공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정하신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그 목표를 계속 바라 보아야 하며 빛과 완전을 향한 우리의 전진은 그의 가르침과 생애, 그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던들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참으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날 따라라”주 말씀하니

주 발자취 따라 가세

하나님 사랑하시는 독생자와

하나 되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그분을 위해 생명을 바칠 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의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예언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예수와 예언자의 위대한 가르침이 반영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가득찬 부모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김볼 대관장님과 그 밖의 여러분이 인용하셨던 교리와 성약의 성구를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기본 원리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우리의 책임을 분명히 해 줍니다.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시온의 주민에게...하나의 율법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62 : 25, 26.)

제가 주일학교나 초등학교나 신학원 교사의 머리 위에 떨어지지 않고 부모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복음의 지식과 인생의 목적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최선을 다해 보살피 주는 것이 모든 말일성도 부모의 성스러운 의무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16명의 손자손녀를 둔 사람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이들보다 내 마음속에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모가 그들을 합당하게 키우기 위해서 보이는 노력에 감사함을 금하지 못합니다.

다음의 두 성구는 부모인 우리가 자녀와 손자들에게 의로운 모범을 보이고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큰 지침이 되어 왔습니다.

첫째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음은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영생, 승영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

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이상의 말씀을 이행하고 주님께 주신 계명을 지킬 때만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할 때 다음과 같은 큰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약속받았습니다.

“만일 내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4 : 7)

주님께서는 다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 : 10)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승영과 영생을 이르는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모두 이 길을 택하고, 자녀에게도 이 길을 택해 의롭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면전에 되돌아가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부자니라”(교성 11 : 7)

우리 모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전에 가서 우리가 구하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곳에 가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당해 질 수 있습니까? 복음의 원리대로 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합당해 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하며, 십일조와 헌금을 바쳐야 하며 지혜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거래를 해야 하며, 매사에 있어서 **교회의 역원을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에 대해 주의깊게 생각해 봅시다. 과오를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회개하여 가정에 질서를 세우고 신전에 갈 수 있고, 책

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주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나는 우리가 모두 부지런히 이 말씀을 좇아,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능력을 다해 복음대로 생활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 문을 열고...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말 3 : 10)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항상 그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이 복음이 조금도 지상에서 떨어져 나감이 없이 완전히 회복될 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임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창조할 때 도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는 아버지를 도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으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셨고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이 오늘날 살아계신 예언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우리의 지도자가 되도록 예비된 분이시며 왕국 건설을 위한 큰 발전을 이루신 분입니다. 나는 매사에 있어서 그분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길을 따른다

한국 서울 선교부장단 제 1보좌 박재암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처음 이곳에 오신 여러분, 우리 말일 성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때가 참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된 모든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없이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발전에서 소망도 영생도, 구원도 없읍니다.

오늘 1975년 한국 대회를 위하여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신 이 지상에서 유일하신 예언자와 교회 사도 그리고 지도자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기쁜 마음 한량이 없읍니다.

저는 오늘 한국에서 최초로 갖는 본 대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귀한 순간을 위하여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한국에 있어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초창기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고로 이 기회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일성도의 미국 군인들에 의하여 1951년에서 1955년 사이에 한국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도 사업은 선교사의 도움과 우리말로 된 교회 책자없이 그들은 주님의 영의 인도에 따라 전도의 문을 열었으며 실제적으로 한국 선교부의 기초를 닦았던 것입니다.

1954년 9월 초순경에 십이사도 중의 한 사람인 해롤드 비리 사도님께서 한국을 특별히 방문하시고 교회 대관장단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 독립된



선교부의 설립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일년 후 1955년 8월 2일 화요일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신 조셉 필딩 스미스 사도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국민과 이 나라를 회복된 복음에 힘입어 살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주님께 헌납하셨습니다.

그후 8개월이 지나 처음으로 리차드 엘 미튼 장로와 파우엘 장로가 이 나라의 복음 선교사로 허락을 받고 1956년 4월 15일에 이 땅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후 6년이 지나 1962년 7월 6일에는 독립된 한국 선교부는 주님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제일 이 카 장로께서 초대 한국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954년을 위시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총관리 직원들의 1/3 이상이 한국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이곳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할 때마다 그것은 위대한 교훈이 되었으며 교회에 대한 강한 간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 한국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교회에 대한 그들의 헌신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국 부산 선교부를 포함해서 여섯 번째 선교부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한 지도자로서 저는 그들 선교부장과 가깝게 교회 일을 하여 왔던 까닭으로 여러 의미에 있어서 저는 교회 안에서 의롭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들 선교부장은 선교부장으로서는 한국 선교부를 이끌어 가는 데 그들 나름대로 훌륭한 특징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들의 지도 원리에 대하여 몇 말씀 드렸으면 합니다.

첫째로 제일 이 카 선교부장님은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제2대 선교부장 스펜서 제이 파머 부장은 우리들에게 경전상에 있는 세밀한 교회 교리를 가르쳤으며 또한 그는 한국 사회의 저명한 인사와 지식층을 사귀기를 펴 좋아하여 그들에게 우리 교회를 알리는 데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제3대 선교부장 로버트 에이치 슬로버 부장은 그의 탁월한 행정 능력을 발휘하여 한국 교회 지도자와 더불어 선교부를 이끌어 가는 데 대단히 훌륭했으며 그는 또한 교회 정책을 운영하는 여러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4대 선교부장 엘 에드워드 브라운 부장은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충실히 살도록 가르치고 또한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3년의 선교부장 임기 동안 그

는 “가정의 밤”의 중요성과 가정 복음 교육에 대하여 늘 강조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제5대 선교부장 유진 피 톨 한국 서울 선교부장과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보좌하는 한 사람으로 그가 복음 전도의 도구로써 메스컴을 잘 이용하는 탁월한 선교 지도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텐더 애플즈 소녀 합창단과 뉴호라이즌이란 노래부르는 선교사 팀을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온 나라에 우리 교회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여러분께 발표하고 싶은 가장 큰 역사 중의 하나는 1973년 3월 8일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께서 주님의 영에 힘입어 이곳 한국에 오셔서 서울 스테이크(서울교구)를 세웠던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역사적 사실과 위대한 교회 지도자님들의 가르침으로 이제 이 나라에도 우리들의 교회를 우리 힘으로 이끌어 나갈 많은 자격있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예언자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들이 이때까지 가져 보지 못한 축복스런 본 대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백성과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국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국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옛선지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오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교부장 유진 피 톨 장로

는 신앙과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인생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질문을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은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참 사랑의 이상을 실현치 못한 실패의 연속입니다. 우리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그에 순종하는 마음은 거듭난 생명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만큼 주님의 말씀을 크게 증거하는 진리는 없습니다. 복음은 진실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믿고 사랑하며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성실한 말일성도들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속이는 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험담하거나 가장하며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늘어 놓는 것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며 성실하고 정직하며 사실에 대하여 충실성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개인 생활을 살펴보면 우리들의 사회 생활에서나 가정 생활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열들을 기뻐합니다.

그의 교회에 대한 일이라든지 그의 말씀과 가르침과 교훈을 사랑하며 그 일들을 생각하기를 즐겨합니다.

하늘의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속된 일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마저 속된 일에 두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 안에서 자유를 택하고 세상의 속된 이상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순결의 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지도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더욱 사도 바울은 성도 디모테에게 강조하기를 “맑은 양심 안에 있는 신앙의 신비성”을 가지라고 외쳤습니다. 순수한 사랑은 그 생활의 깨끗함에서 나타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수한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 가는 데는 깨끗한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하며 병에 대해서는 알맞고 순수한 약을 원합니다. 모든 생산품의 가치는 그것의 순수성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

정한 문학, 부도덕한 영화, 도색 소설 등은 우리들의 생활을 녹슬게 하며 큰 해독을 가져 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의 욕심과 자만심과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더럽혀 질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만이 의롭다, 즉 자기만이 제일이다 하고 주장하는 자는 가장 날카로운 검에 녹이 쓴 인격자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권 가운데 우정의 사랑과 순수성이 없이 그리고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운데서 교회는 영을 고취시키는 인간 관계가 없이 어떻게 우리들이 내 이웃을 위해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편 작가는 “형제들이 다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 살아간다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우냐”고 노래했습니다.

구약성서 애가는 예수를 그림과 같이 나타내었습니다. 참으로 구세주께서 고통 중에 돌아가셨을 때는 아름답지도 않고 외모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우리들이 의로운 축복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에서 그리고 신권의 우정 가운데 예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님들의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면을 여러 가지로 상호해 보아 우리들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펜서 더블류 킴블 예언자께서 이 마지막 날에 “걸음의 폭을 넓히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압니다. 회복된 복음은 진실하며 이 교회는 지상의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 성스러운 본 대회에 예언자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을 준비하라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모임에 참석하여 주신 친구 여러분, 저희의 사랑과 우정을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점점 다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참으로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참으로 친절과 예의로 대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한국 사람이야말로 동양을 대표하는 근엄하고 친절한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한국은 가난과 외국의 압제와 외국의 군사력으로 인하여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햇불로 가진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주의를 모아 몇 가지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총관리 역원되시는 분들께서 대부분의 복음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높은 표준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십일조를 바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억하여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에게 매우 풍요한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번은 어떤 유명한 분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당신의 교회와 우리 교회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언자께서는, “우리에게는 성신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합당한 신권 소유자로부터 침례받은 교회의 모든 회원은 성신을 받습니다. 복음의 기본되는 점 한 가지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신앙 개조 1조)입니다. 아마도 모든 경륜의 시대를 통하여, 신회는 세 분의 인격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신 분은 요셉 스미스가 첫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예수님은 육체와 감정을 갖고 계신 개체이며 인격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교회 초기 지도자 중의 한 분은 “현재의 인간처럼 하나님은 한때 인간과 같았으며 인간도 현재의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인간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지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높은 이상을 주셨습니다.

(토마스 시 롬니, 로렌조 스노우의 일생, 46, 47페이지)

성신은 영체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성신은 우리의 동반자로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합당한 권능을 소유한 자로부터 인수를 받음으로써 모든 사람은 성신을 받습니다. 성신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특별한 특권을 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신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아시아에 신전을 건립할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동경에 세워질 신전의 모형도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부터 신전이 완공될 때까지 여러분께서는 이 신전 건립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의식을 행한다는 것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점에 관하여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을 믿으면 이 문제는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고전 15:29)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은 생소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 교리는 성경에 있는 교리이며,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도 이 교리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원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교회 대관장이던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육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벧전 3:18-20)

지구가 창조된 이래 많은 세대가 지났으며, 대부분이 사악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담으로부터 노아때까지의 세대를 몹시 사악한 백성들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치는 예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언자들을 조롱하고 그

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
다.

선지자 이사야도 옥에 갇혀 발전을
하지 못하는 영에 관하여 말씀하셨습
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3:5)고 말씀하신 분이 곧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원리는
매우 긍정적이며 명확한 원리입니다.
월가월부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말
씀을 받아들여듣는가 아니면 프로그램
전체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노아때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까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지금 영의 상태로 옥에 갇혀 언젠가
의로운 여러분이 이미 받은 진리를
그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회개하면서 기다리고 있습
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
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요? 주님은 특별히 노아 시대의 백
성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방탕한 자들로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메마른
땅위에서 방주를 짓는 노아를 조롱했
습니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겠습
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
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벧전 4
:6)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에
게 이 성구를 설명해 드리시기 바랍
니다. 왜냐하면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그들은 예언자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 주
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
다.

어제, 여러분 중에 72대의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 계보를 찾으신 분이 계
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는 수천 명의 조상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조상을 위하
여 신전 의식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서 영의 세계에 있는 노아 시대의 백
성을 위하여 하셨던 것같이 그들에게
도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신전 사업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는 신전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의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은 자
를 위한 의식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
실 그 영들이 의식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을 집행해 줌으로써 그
들을 위하여 은행에 넣어 두어서 그
들이 준비가 될 때 찾아 갈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와 남편은 어
느 누구보다 우리에게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 합당하게 준비하여 거룩한 신전
에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
도자들이 소유하였던 하나님의 성신
권은 이 가족의 유대를 결속시켜 줍
니다. 새로이 서게 될 일본 동경 신
전은 한국에서 그리 먼 곳은 아닙니
다. 이제는 남편과 아버지 되시는 분
이 아내와 자녀를 그에게 인봉하지
못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응에 개의치 않고
신전 건립 기금에 협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사람들이 경전을 읽으면서 이 중요
한 프로그램을 알지 못한다면 이해하
기 어렵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거듭
가르쳐지고 실시된 것입니다. 그리스
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 명
이 그를 바라다 보면서 “예수여 당신
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
소서”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
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눅 23:43) 하
셨습니다. 낙원은 천국이 아닙니다.
낙원은 영들이 잠깐 쉬어 가는 곳입
니다. 구세주와 강도는 그날 오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영의
세계에 가서 노아 시대에 죽었던 영
들이 있는 영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현대의 예언자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또 다른 계시를 받으셨습
니다. 그분은 계시를 통해 구세주께
서 영옥에 가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동산에서 마리아를 만나셨
을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요
20:17)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거의 3일 후
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베드로가 말
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영
옥의 문을 여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
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
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요
20:17)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의식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행하
여 주는 이 봉사적인 프로그램이 참
으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침례는 인
간이 받을 수 있는 경험이며,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도 역시 이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입니다. 신전의 인
봉 의식도 지상에서 행하는 의식입니
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신전에 관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파고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것에 관하여 기도하고, 계획을 세
우시고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자녀에게 이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
다.

다른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세계 역사 초기에 이스라엘 민
족이 크게 분산된 일이 있습니다. 그
러나 오늘날 이스라엘인이 집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젊은 선교사들이 현재 65개국에서 복
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
금 하고 있는 것이 곧 이스라엘을 집
합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초기에 우
리는 교회 회원에게 유태주로 집합하
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온 세
계에서 신전이 있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세계
에 16개의 신전이 흩어져 있으며 두
개의 신전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므
로 이제는 더 이상 솔트레이크시티로
사람들이 모여야 할 필요가 없어졌습
니다. 선교사들은 침례와 확인 의식
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회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스테이크를

조직하기 위해서 이곳에 옵니다. 그러므로 다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은 한국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와 똑같이 이곳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수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한국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집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민을 위한 집합 장소이며, 호주는 호주민을 위한 집합 장소이고, 브라질은 브라질 국민을 위한 집합 장소이며, 영국은 영국민을 위한 집합 장소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 주신 위대한 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교사가 없다면 집합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전세계에는 약 2만명의 미국 청년들이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모든 선교사는 미국에서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일본, 필리핀 등지에서도 선교사가 나오지 않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나 나의 아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들과 딸도 주님께 빚진 많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두뇌를 조직한 사람은 없으며, 아무도 자신의 눈과 귀와 입을 만든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해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하늘의 부모와 지상의 부모님께서 이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선교사로 내 보내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모두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합당한 자가 되도록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돈을 저축하여 선교사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선교사 기금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책에

기록해 두어서 매일 이에 대하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집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는 그 아들이 “언젠가는 선교사가 되어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하여 지금부터 10월이라도 저축하여 그 아들이 선교사 기금을 저축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같이 할진대, 이 나라는 발전하고 번성하게 된다고 나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가난과 궁핍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분은 재정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훌륭한 의복을 입게 되고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서는 준비하시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교 사업은 십일조와 마찬가지로 축복을 부어 줍니다. 말라기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쌓아 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 3:10 참조)

이제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의 가장 슬픈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곳에 오기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여러분의 헌신과 신앙과 성실함을 볼 때 우리의 사랑은 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번성하도록 축복하고, 아울러 주님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축복을 부어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국민에게 축복을 부어 드리고, 특히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끝으로 나는 이 경륜의 시대의 첫 번째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는 실로 위대한 시현을 보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땅은 준비되었고 미국 국민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경전

을 읽는 가운데 만약 무언가를 알기를 원할 때는 근원되시는 자에게 가서 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숲속 조용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탄은 그를 없애려 하였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무서운 육



신의 고통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사탄은 이 프로그램을 지상에 퍼기 전에 멸하려 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와 아들이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아버지가 아들을 가리키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 2서:17)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배도의 시대 동안 굳게 닫혔던 하늘 문은 이제 인간에게 계시를 내려 줄 수 있도록 열렸습니다. 그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임을 여러분께 간증드리며, 성도들이 오늘날 누리고 있는 모든 수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은 교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빕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아쉬운 작별의 시간
안녕히
김볼 대관장님

이태리 밀러, 양 해운





©
1975